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홀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트럼프·김정은 전화번호 아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백악관 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북한 김정은은 핵보유세력”이라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우리 서로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측근 그룹에서도 계속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조차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 신분으로 북한 수뇌부와 직접 협상했던 유일한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셀폰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한 사이다. 서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처럼 햄버거를 먹으며 ‘개추얼한 만남을 약속할 수도 있다’

그는 최근에도 “다른 누구보다 김정은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사이는 정말



2018년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회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은(왼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핫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 당시 한국 대통령을 중재자로 삼아야 했으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은 이미 오랫동안 북한과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황이라, 미북 직접 협상 테이블에 끼여들 틈이 없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장문의 ‘연애 편지’를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실제로 편지 내용은 남녀 간의 연애감정이 묻어나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극복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현재보다 9배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지렛대 발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핵능력을 모두 폐기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

로 이를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국익을 최대한 앞세워 합당한 주둔비용 분담금을 받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어들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20 차례 이상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내왔다.

한국 입장에서 본격적인 미북대화를 늦추는 것이 급선무다.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의 외교선순위 해결 과제에서 북한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란 핵문제를 포함한 중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 문제 또한 쉽지 않다.

북한도 과거 협상당시와 달리 러시아와 중국의 뒷배가 생겼기에 미국의 요구에 좀더 당당해질 수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강경파라는 사실도 미북 협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욱재 기자

▶ 2면 ‘트럼프·김정은’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취임 이튿날 국가기도회 참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인 21일 ‘국가기도회’(A Service of Prayer for the Nation)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DC의 워싱턴국립대성당에서 열린 기도회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JD밴스 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 등도 함께했다.

이날 기도회는 종교 조월 행사로 진행됐다. 한 서한을 통해 “폐어팩스 카지노에 정부 기밀을 다루는 요원들이 자주 들락거리며 이들 기밀을 노리는 이들과 가까워지면 정보가 사고팔리는 극단적인 사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국립대성당은 “종교와 교파를 초월한 파트너들이 모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앞으로 다가올 해에 신의 인도를 구할 것”이라고 행사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기도회는 1933년 시작된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 취임 행사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도회에 참석함으로써 공식 취임 행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페어팩스 카지노, 국가기밀 위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미국 국가 기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카지노 허용 법안은 20일(월) 버지니아 상원 소위원회회를 통과했다.

109명의 중앙정보국(CIA) 등 전직 고위 정보 관료들은 “간첩과 카지노가 섞

일 경우 매우 위험하다”면서 “우리는 페어팩스 카운티 카지노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지역은 CIA 본부, 국가데이터센터, 국가정보국장실(DNI) 등 수많은 정보기관과 정보 계약업체가 산재해 페어팩스에 카지노를 건설하면 비밀을 지키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고 경

고했다.

전직 고위 정보 관료들은 최근 단체를 결성하고 버지니아 정부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페어팩스 카지노에 정부 기밀을 다루는 요원들이 자주 들락거리며 이들 기밀을 노리는 이들과 가까워지면 정보가 사고팔리는 극단적인 사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한에 서명한 109명 중에는 리크 게이트의 피해자인 발레리 플레임도 포함돼 있다. 또한 셸리 혼 전 국방부 정보선임국장, 앤 그루너 전 CIA 무기 정보-비확산 및 무기 통제 센터 부국장 등도 포함돼 있다.

카지노와 연루된 스파이 사례도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했던 전직

스파이 로버트 한센은 자신의 거주 주택 근처 공원에서 러시아 스파이로부터 현금 140만 달러와 다이아몬드를 받고 기밀을 빼돌렸다.

1992년 연방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도박 빚 때문에 최소 7명의 미국인이 소련에 정부 기밀을 팔았다.

김윤미 기자

▶ 2면 ‘페어팩스 카지노’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책임
순금 야기 불변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세금 줄지만 수입품 가격 오를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경제 전반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가 선거 기간 동안 내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세금, 암호화폐, 모기지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분야별 전망을 정리했다.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도입된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세법(TCJA)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행 1361만 달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팀, 초과근무수당, 소셜 연금 등에 대한 과세 폐지,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가족 간병인 세액공제 등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아이디어가 실현될 경우, 납세자들은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기 위해 감세를 한 만큼 다른 곳에서 세수를 충당하려 할 것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세법 전체에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정책의 시행 시점은 2026

년 이후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적어도 올해 여름 이후에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다.

보편 관세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 소비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미소매협회(NFR)는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관세가 시행 되도 물가상승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손성원 로올라 메리마운트 경영대 교수는 “관세 상승분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조사나 수입사들이 상승한 비용을 흡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모기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단기적으로 모기지 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손 교수는 “모기지는 10년물 국채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현재 국제 금리가 높은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행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단기적으로는 모기지가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서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민영화로 인해 정부 보증이 줄어들 경우, 모기지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민영화 이후 정부의 대출 책임이 약화되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고,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내세웠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희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취임식 참석하려고 명품 가방 버리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캐피털 힐 아레나 체육관에 입장하기 위해 명품 가방 조차 서슴없이 버린 참석자들이 많았다.

한파로 인해 취임식 장소가 내셔널 몰 야외에서 실내로 변경되면서 가방 등 소지품 반입이 금지된 사실을 모르고 행사에 참석했던 이들이 가방 등을 과감히 버린 것이다.

체육관 입구에는 참석자들이 버린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은 백팩과 등의 반입을 금지했다.

폐기된 가방 중에는 루이비통 등 명품도 즐비했다.

또한 지갑 사이즈의 클러치 가방에 대해서는 5x7인치, 의료용 가방과 수영용 가방에 대해서는 14x14x6인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즈를 벗어난 가방은 모두 반입이 불가능해 폐기했던 것이다.

캐피털 힐 아레나는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라도 행사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반입 금지 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립학교 재학생 주는데 인프라 예산은 급증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이 향후 10년간 학교 수리 및 건설 예산이 26억달러에 이르지만, 공채 발행 예정액은 4억2800만달러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모두 200여개의 대형 학교 건물에 28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의 내배에 이른다.

페어팩스 공립학교 재학생은 현재 18만384명이지만, 2029-2030학년도에 17만777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우 기자

H마트, 을사년 설맞이 빨간 봉투 증정 이벤트

“빨간 봉투에 소중한 마음 담아 나눠주세요!”

미주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다가오는 을사년 설을 맞아 2025년 1월 21일부터 ‘2025 설맞이 빨간 봉투’를 증정한다.

본 행사는 스마트카드 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며, H마트에서 \$30 이상 구매 시 설맞이 빨간 봉투 한 세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증정된다.

H마트는 “H마트의 아시아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들에게 아시아 전통문화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2025년 설맞이 빨간 봉투에는 고품스러운 아시아 전통 가구와 동양풍의 색깔로 디자인에 섬세함을 더하였다.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빨간 봉투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사용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Loyalty Membership Card로, 1000포인트(\$1 = 1 point) 적립 시 10달러 H마트 상품권을 지급하며, 이외에 다양한 할인 및 행사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H마트 스마트카드는 매장 내 고객 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H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은 애플 스토어 (Apple Store) 또



는 구글 플레이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본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 대장으로 하면 된다.

▷버지니아
에난데일점(703-914-4222), 버크점(703-621-2345), 센터빌점(703-830-6180), 페어팩스점 (703-896-4640), 헌돈점(571-346-7330), 매나사스점(571-358-3400).

▷메릴랜드
캐톤스빌점(443-612-9020), 엘리콧시티점(443-574-3456), 프레드릭점(240-566-1405), 게이더스버그점(301-355-7499).

▶1면 ‘트럼프-김정은’에서 이어집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북수교를 통해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의 한반도 파트너로 등극하는 것이다.

협상의 주요 의제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 무력화시키는 것

이다. 대신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수교를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인데, 한국은 현재 어지러운 정국 탓에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재 기자

▶1면 ‘페어팩스 카지노’에서 이어집니다

법안을 주도하는 스콧 서로벨 상원다수당 대표(민주, 페어팩스)는 “좀더 편하게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스파이를 부패시킨다면 미국은 매우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는 굳이 카지노가 아니라도 스포츠 베팅 등 매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도박도 많다”고 반박했다.

현재 워싱턴 메트로 지역 인근에는 웨스트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에 최소 8

곳 이상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직 고위 관료들은 “카지노가 타이슨스 중심부에 들어서면 점심 시간이나 퇴근 후 해피아워를 이용해 잠깐 다녀오는 등 유혹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니퍼 보이스코 상원의원(민주, 페어팩스)도 고위 관료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페어팩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버지니아 의회가 카지노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최종 성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워싱턴 날씨 (°F)

☀️	23일(목) 34~18	☁️	26일(일) 46~29
☀️	24일(금) 35~16	☁️	27일(월) 42~26
☀️	25일(토) 38~28	☀️	28일(화) 46~29

1월 22일(수) 21~1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오랜 경력으로 성심성의껏 팔고/사고/렌트해 드립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버지니아 최고의 스크린골프 시설 완비!!**

찬틀리 GTR

• 인도어 골프 • 실내 연습장 • 스크린 골프 • 골프레슨

깨끗한 최첨단 시설에서 골프의 재미를 만끽하세요!

GTR 703-817-2130 **OPEN HOURS** **1월~3월까지**
월~금 10:00AM~10:00PM | 토~일 8:00AM~10:00PM
3656 Centerview Dr., Suite 6, Chantilly, VA 20151 (찬틀리 롯데 마트에서 1분 거리)

연방공무원 커뮤니티 솔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연방공무원 출근 의무와 채용 동결을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공무원 커뮤니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에게 복무하고 충실하고 유능한 인재만을 고용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을 일시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대규모 채용을 앞둔 국세청(IRS) 프로젝트가 전면 동결되고 풀타임 연방공무원의 출근을 강제했다.

하지만 전면적인 출근 조치가 단행되기는 힘들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 부처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사무실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택 근무가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출근을 강제하기 힘들다.

현재 워싱턴 지역 연방정부 공무원의 54%가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절차는 향후 90일 동안 동결된다. 이 기간 동안 연방인사처(OPM)는 연방효율성부(DOGE)와 조율해 연방공무원 감축 규모를 확정하고 향후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최근 50년새 연방정부

공무원은 약 6%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미국 인구는 57% 증가해 공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이 기간 연방정부

용역 지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하지만 연방공무원 임금 지출 예산은 4.3%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20일 백악관 내에 임시로 DOGE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직전 엘론 머스크 DOGE 장관 지명자는 연방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비영리단체 퍼블릭 시티즌과 연방공무원노동연맹 등은 DOGE가 연방 자문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기는 커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함께하는 외대, 더 빛나는 미래!

31일 외대 동문회 신년모임

한국외대 워싱턴동문회(회장 최태은)가 오는 31일(금) 애난데일 한강 식당에서 신년모임을 개최한다.

최태은 회장은 “동문 뿐만 아니라 가족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소중한 친교와 유대의 시간을 갖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작년 연방국세청(IRS)에 비영리단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회비를 완납한 회원과 이사라면 누구나 동문회 은행계좌에 접근해 내역과 잔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비영리 단체 등록을 마친 이유는, 동문회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동문회는 비영리단체 등록을 계기로 동문들의 은퇴계좌(IRA)에서 동문회 은행 계좌로 직접 기부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문 회비를 대폭 확대해 안정적으로 동문자녀 장학금과 유학생 장학금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본명 간사는 “한국외대 동문회에 보통 50여명이 참석하는데 한인 경제권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외대 워싱턴 동문회

명부에 등재된 회원은 168명이지만, 실제 거주 동문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유학생 동문은 부담없이 참석해 동문 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동문회는 올해에도 미주 총동문회 초청 우수 입학생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남녀 각각 2명씩 총 4명의 재학생을 미국에 초청하는 행사로, 워싱턴 동문회는 이 지역에서 3박4일 일정을 지원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외대는 작년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하고 조현동(스페인어 78학번) 주미 대사에게 HUFS AWARD를 시상하기도 했다. 이 상은 대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외대의 명예를 드높인 외대 동문에게 수여한다.

한국외대는 1954년 개교 이래, 전 세계 45개 이상의 언어를 교육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기관이자 AI, 반도체 등 첨단 융합학문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융복합 대학으로서 외교관, 경제인,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신년 모임은 31일 오후 6시 개최한다. 연락은 최태은 회장(703-966-7268), 구본명 간사(202-210-9924)에게 하면 된다. 김옥재 기자



MD무어주지사 증세로 정치적 도박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수십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각종 세금과 수수료 인상을 예고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적 도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14년 선거에서 래리 호건(공화) 주지사에게 패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마틴 오말리 주지사 시절의 각종 증세 조치로 민심이 공화당으로 떠났던 사실을 고백했다. 무어 주지사는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해 30억달러 적자를 메꾸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으나, 전 계층을 아우르는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했다. 토드 에블리 세인트 메리스 대학 교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증세는 정치적 시련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다.

무어 주지사는 교통정체 해소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아마존과 도어대쉬 같은 대형 플랫폼 배달기업의 배달 주문 건당 7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달 수수료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매 매출이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된다. 무어 주

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차량 배기가스 검사 수수료를 두 배로 인상하고,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 계획도 앞당겼다. 1만5천달러 이상 신차를 등록하는 주민은 이전의 구형 차량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가 사라진다. 현재 자동차 검사 비용 14달러도 30달러까지 인상된다. 각종 연체료도 인상되며, 자동차 등록비를 분할 납부할 경우 비용도 인상된다.

무어 주지사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6억9500만달러를 거둬 공채를 조기 상환하고,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옥재 기자

뉴스타 부동산,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 28일 개강

뉴스타 부동산(대표 에드워드 오)이 오는 28일(화) 5주 속성반 부동산 학교를 개강한다.

뉴스타 부동산은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부동산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학교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수업을 병행하며 한국식 짝집 강의를 진행한다. 부동산 에이전트 시험 합격 후에는 10주 실전교육과 기본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뉴스타 부동산이 자체 제작한 한글교재 등을 사용해 제공한다. 오 대표는



“뉴스타 부동산은 버지니아, DC, 메릴랜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고소득 전문직인 부동산 에이전트에 도전할 분들의 관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뉴스타 부동산 측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면 100% 합

격을 보장한다”면서 “전문 교수진이 제공하는 양질의 수업 내용과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준비시켜준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 손님 한분 한분에 정성을 다 하는 에이전트가 성공한다”면서 “성공하는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703-496-4889 주소: 8230 Leesburg Pike #600 Tysons Corner, VA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노

DUO NY 212-915-7115

함께하는 외대! 더 빛나는미래!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회 신년 모임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워싱턴 DC 동문회에서 동문 여러분과 가족을 초대하는 특별한 신년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외대 동문으로서의 소중한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 안내

- **일 시:**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
- **장 소:** 한강 (Han Gang Restaurant)
724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
- * 문의 및 RSVP: 회장 최태은: 703-966-7268
간사 구본명: 202-210-9924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워싱턴 동문회 회장 최태은

한국인 유학생 10년 사이 36%나 줄어

팬데믹 이후 4만 명선에서 정체 반이민 정책·학비 부담 등 영향

최근 10년 사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이 3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가 소폭 증가 추세다.

국제교육연구원(IIE)이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보고서 '2023~2024학년도 한국인 유학생 현황'에 따르면 미국 대학, 대학원, 어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총 4만31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6% 줄어든 수치다. 이 기간 대학 학부생은 1만7760

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1.2%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원생은 1만4930명(34.6%), 졸업후현장실습(OPT)은 7774명(18%), 어학원생은 2685명(6.2%) 순으로 집계됐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8%, 2.5% 줄었다. 반면 OPT는 17%, 어학원생은 3.7% 늘었다. OPT 증가는 미국 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H-1B) 취득 경쟁률 심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IIE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2010~2011학년도 7만335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한국인 유학생은 2013~2014학년도 6만8047명으로 7만 명대가 무너진 뒤, 2019~2020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학년도	한국인 유학생(명)
2023~2024	4만3149
2020~2021	3만9491
2015~2016	6만1007
2010~2011	7만3351
2005~2006	7만1000

자료: 국제교육연구원(IIE)

학년도까지 매년 3~7%씩 줄어 들었다. <표 참조>

특히 팬데믹이 창궐한 2020~2021학년도 한국인 유학생은 3만949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당시 유학생은 전년과 비교해 20%(약 1만 명)까지 급감했다. 이후 한국인 유학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인 유학생은 2021~2022학년도 4만755명, 2022~2023학년도 4만3847명, 2023~2024학년도 4만3149명에 그쳤다.

한국인 유학생이 급감한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한국 학령인구 변화가 꼽힌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진학을 앞둔 만 18세 학령인구는 2005년 60만8924명에서 2010년 69만4883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5년 66만3843명, 2020년 51만1707명, 2024년 43만7706명으로 급감했다. 실제 연도별 한국 학령인구 변화와 한국인 유학생 변화는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취임 당시 반이민정책 강화와 팬데믹도

한국인 유학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반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예고했다. 미국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생비자(F-1) 등 비이민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학비 및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칼리지보드와 IIE 등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연간 학비는 2018 학부과정 2만5000달러~5만 달러(대학원 2만4000달러~5만5000달러)에서 2023년 학부과정 2만6000달러~5만5000달러(대학원 2만5000달러~6만 달러)로 인상됐다.

김형재 기자

루비오 국무장관 취임...“미국 국익이 국무부의 우선순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수장인 마코 루비오 장관은 21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J.D. 밴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공약은 미국,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가 이익 증진을 국무부의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그것은 이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가.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는가. 우리를 더 번창하게 하는가이다.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무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3개 질문 중 하나로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3개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무부에 지시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 수호와 미국 및 미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장관에게 국무부의 정책, 프로그램, 인사, 운영을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게 만들 지

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가 뭔가를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아무 대가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유하게 되면 그게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이미 제재, 고물가, 인명 피해 등의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도 끔찍한 결과가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분명 피해를 봤다. 하지만 결국 현실은 지금 우리가 교착 상태와 전쟁 장기화에 직면했다는 것이며 그 교착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역내 파트너들의 안보를 보장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목격한 살상과 죽음, 파괴를 끝내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덴마크, ‘그린란드 필요’ 트럼프에 “원한다고 멋대로 못가져”

덴마크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라스 뢰케 라스무센(사진)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는 나라가 작긴 크긴 간에 모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강대국이건, 어떤 나라이건 간에 그저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갖는 그런 국제 규칙은 있



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영문 매체 ‘더로컬’은 전했다.

그는 “(트럼프의 의도가) 그린란드 주변과 북극 지역의 안보를 위해 덴마크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라면 우리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린란드 정부 지도자(무테 에게데 총리)도 미국인이 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취임식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 “우리는 국제 안보를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며 매입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데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는 그것(그린란드)을 유지하는 데 큰 비용이 든다”면서 “그린란드의

사람들도 덴마크에 행복하지 않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취임식 연설에서는 파나마 운하에 대해 “되찾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그린란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라스무센 장관은 “취임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며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

는 건 아니다. ‘미국 영토 확장’에 관해 다른 언급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일부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덴마크 의회에서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론화한 이후 정부여당, 자국 기업 총수 등 각계 인사들과 잇달아 회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김정은 파병’에 화난 중국, 북송사무소까지 꾸러 압박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는 등 전쟁에 대한 직접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노동자 단속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중국 당국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

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는 무비자 북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북송사무소’까지 설치했다.

이날 북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 ‘북송사무소’를 만들

었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거나 기존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사무소 설치 목적이다.

한 소식통은 또 “최근 중국 정부에서 북한인 상주 인원을 신규로 파견하는

것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수백명 단위의 노동자 파견 계약을 마친 중국 업체들이 노동자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 북한 무역대표부도 신규 간부를 파견받을 수 없어서 기존 인력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후임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은 자국내 모든 지역에서 북한 국적자의 회사(법인) 등 록을 불허하고, 기존 회사는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북한 당국과 무역회사들은 일부 사업체를 러시아로 이동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영교 기자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SNU ISP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PROGRAM

2025 여름방학,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우수한 서울대 교수진 및 외국대학 해외초빙 교수진의 강의를 듣고 학점 취득을 비롯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최고의 기회

- 기간** 2025. 6. 23(월) ~ 7. 26(토) <5주>
- 대상**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학에 합격한 예비 대학생
- 교과목** 인문, 사회, 경영, 경제, 공학, 한국어교육 등 40여개 과목(문화체험 및 실습 포함)
- 강의언어** 영어(과정 완료 시 수료증 및 영문 성적표 발급)
- 장학혜택**
 - 조기등록(수업료 20% 할인/4월 6일 전),
 - 한국학 및 동아시아학 전공자(수업료 20% 할인)
 - 교환학생 협정 체결 대학(수업료 10% 할인)
 - 재등록자, 동문자녀, 형제자매 동반 등록자(수업료 20% 할인)

2025 하계강좌 세부 일정

4월6일 조기등록 마감	
일정	내용
5월 1일	지원신청 마감
5월 6일	비용납부 마감
6월 25일	개회식 <기숙사 체크인(6월 23~24일)>
6월 25~26일	오리엔테이션 - 환영이벤트
7월 23일	수업 종료 및 시험
7월 25일	폐회식 <기숙사 체크아웃(7월 26일)>

2025 하계강좌 비용

구분	금액(₩)	금액(\$)	비고	
필수	신청료	200,000	180 → 140	
	수업료	1,200,000	1,080 → 830	1 course (3 credits)
		2,400,000	2,160 → 1,650	2 courses (4 credits)
		2,790,000	2,511 → 1,910	2 courses (5 credits)
선택	현장체험	300,000	303 → 2,290	2~3 courses (up to 9 credits)
	기숙사	1,100,000	260 → 210	Dormitory Lodging (No Meal)

*USD 금액은 참고용으로 비용 납부는 원화금액기준으로 진행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 - SNU ISP website <https://summer.snu.ac.kr>

문의 이메일 : summer@snu.ac.kr
전화: +82-2-880-4449

젤렌스키 “유럽, 미국 우선순위 아냐...자강·단결해야”

북한군 전투 지역, 평양보다 다보스에 가까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유럽이 경쟁력과 단결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행정명령은 미국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럽이 자국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세계는 유럽을 빼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유럽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문제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이 문제를 협상할 때 유럽의 말을 듣겠느냐”며 “유럽은 세계가 무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완전히 돌볼 방법을 찾아야 하고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결의 이유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들었다. 그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동맹 조약을 맺은 북한의 군대는 이제 평양보다 다보스에 더 가까운 곳에서 전투

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경제력은 유럽보다 훨씬 작지만,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몇 배 많은 군사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 이유”라면서 “한 국가가 혼자 지킬 수 없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서 뒤처졌고, 미·중 양국과의 관세 분쟁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

기 생산에서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체를 위한 중요한 결정은 모두가 함께 내려야 한다. 유럽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 되는 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은 강해질 자격이 있고 이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필요하다”며 “미국도 유럽을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오는 4월 17~20일 애크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 및 해외지역 한상 등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규모 행사다.



1차 등록을 대회 홈페이지(wkbc.us)를 통해 받는다. 이어서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을 희망하는 바이어를 대상

동포청은 우선 기업전시회에 참가해 부스 개설을 희망하는 기업과 대회 관람을 희망하는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wkbc.us)를 통해 받는다. 이어서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을 희망하는 바이어를 대상

으로 2차 등록을 실시할 계획으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문의 사항은 한상넷(hansang.net)과 대회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포청은 올해 대회에서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한국 기업인의 지역별·분야별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진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술 안마시는 Z세대 크게 늘었다

음주자 비율 59% 사상 최저치 “술 취한 건 해롭고 멋있지 않다”

음주 문화를 거부하는 Z세대(1990년 초반~2000년 초반 출생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술을 완전히 끊는 금주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8~34세 사이의 국내 젊은이 중 음주자의 비율은 59%에 그치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18~34세 젊은이 중 적당히 음주하는 것도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00년 대 초반의 두 배로 급증했다.

금요업에 종사하는 올리비아(28)는 “많은 친구들이 술을 끊기 시작했다”며 “술에 취하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이 멋있지 않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초 미국인들은 음주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새해를 맞았다.

비백 머시 공중보건국장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모든 술은 암을 유발한다. 많은 이들이 적당한 음주는 건

강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연구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주류업계를 발칵 뒤집게 했다.

일부 주류회사들은 최근의 금주 흐름에 대응해 자사 제품의 무알코올 버전을 내놓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무알코올 주류 판매점이나 테이스팅 룸 등도 선보

이고 있다. 10년째 금주를 이어

고 있는 알렉산드라 자

우너(34)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의 유흥을 좋아한다. 단지 그것들을 술집에서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을 뿐”이라

며 “무알코올 행사든 뭐든 술 없이도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고 진정한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오와대학의 전염병학 교수인 메리 찰튼은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조금 더 위험을 피하려 한다”며 “이전 세대는 ‘어차피 죽을 거야. 차라리 담배를 피우는 게 낫겠다’라는 정신을 받아들였다면, Z세

대는 그런 생각을 거부한다. 혹은 최소한 술이나 담배에 중독돼봤자 기

업들 돈을 벌어들일 뿐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치매환자 2060년까지 두배 급증

35년 후 연간 신규 환자 100만명 고령화에 치매 걸릴 확률 42%로

고령화 사회로 가파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35년 후에는 연간 신규 치매환자 수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인 전망이 나왔다.

‘네이처메디슨’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60년 미국의 연간 신규 치매환자 수는 100만명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지속적인 고령화가 주 원인으로 꼽혔다.

예전보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은 평생동안 치매에 걸릴 확률이 42%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이들은 600만명 이상으로, 65세 이상 성인의 약 10%가 치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치매로 사망하는 미국인은 10만명 이상이며, 간병 및 기타 비용으로는 6000억 달러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연구진은 유색인종, 흑인 치매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추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흑인 중 연간 신규 치매환자 수는 2020년 6만명에서 2060년에는 1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신규 치매환자보다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연구진은 여성의 치매 위험이 남성보다 높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은별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풀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entra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라조물)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미라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미국 황금기 시작된다”... 트럼프 ‘수퍼 마가’ 진화 선언

(MAGA)

31분 동안 ‘아메리카’ 42번 외쳐 국경·에너지 국가비상사태 선포

‘수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의 진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공개한 취임사를 8년 전 같은 날 내놓은 집권 1기 취임사와 견줘보면 이렇게 집약된다. 이날 취임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고 운을 뗐다. 이후 31분 동안 진행된 취임연설은 그가 4년간 펼칠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는 ‘수퍼 마가 선언문’으로 읽혔다. 1기 취임사에서 입에 올린 적이 없던 ‘자유’나 ‘정의’ 등 가치 지향적 언어가 각각 3회, 5회 등장했고, ‘통합’을 두 차례 언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의 번영을 약속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내리는 데 주력하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을 진단하는 대목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수위 높은 언사를 쓰며 날을 바짝 세웠다. 이번 취임사에 담긴 코드 5가지 통해 배경과 맥락을 살펴본다.

◆코드① 아메리카(America)=취임사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기조는 ‘아메리카 퍼스트’다. 취임사 초반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약속한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말로 마무리를 했다. 8년 전 취임사에서 35회 언급했던 ‘아메리카’를 이번에는 42번 썼다.

◆코드② 비상(emergency)=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신뢰의 위기 ▶부패한 기득권층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등 미국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지금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추상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오늘저는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

표할 것이고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며 주요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두 번의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모든 불법 입국을 즉시 중단하고 수백만 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코드③ 구원(save)=트럼프는 지난해 7월 대선 유세 때 벌어진 총격 암살 시도 사건을 거론하며 시련과 구원의 서사를 썼다. 트럼프는 “저는 미국 250년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았다”며 “사람들은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살자 총탄에 제 귀가 찢겼지만 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느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라고 했다.

◆코드④ 팽창(expansion)=트럼프는 팽창주의적 대외 정책도 거침없이 공개했다. 미 플로리다주 남쪽에 접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파나마에 넘겨준 운하를 되찾아 오겠다”고 했다. 또 북미에서 가장 높은 알래스카주 디날리산을 미국의 25대 대통령 이름을 딴 윌리엄 매킨리산으로 되돌려 놓겠다고도 했다. “매킨리 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면서다.

◆코드⑤ 법치(law)=트럼프는 “헌법과 법치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민주당 행정부에서 시행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트럼프는 “오늘부터 미국 정책상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클린턴·부시·오바마... 트럼프에 축하 박수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미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린 가운데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란히 서 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EPA·연합뉴스]

중국 “싸우면 둘 다 다친다” 축하 대신 기싸움

푸틴 “새 미국과 대화할 준비됐다”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상외교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읽기에 분주하다.

중국 외교부는 별도의 축하 메시지 없이 기선 제압에 나섰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미가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싸우면 둘 다 다친다”고 경고했다. 마오 대변인은 “새 시대 중국과 미국의 올바른 관계를 모색해나갈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4년 전 화춘잉(華春瑩) 당시 대변인이 “선량한 전사가 사

악한 세력에 승리하리라 믿는다”며 까칠하게 나온 것에 비하면 다소 누그러진 태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 화상회의에서 “트럼프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식 이튿날인 21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화상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21일 X(엑스·옛 트위터)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일 협력 관계

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미동맹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미 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은 47대 대통령 임기에서도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진·김현에 기자, 서유진 기자

트럼프, 무더기 행정명령 서명 쇼... “미국 영토 확장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에서 국가가 연주될 때 거수경례를 했고,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조용히 가슴에 오른손을 올렸다. 미 의회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식이 끝난 뒤엔 트럼프가 전임자에게 약속도 청하지 않았다. 서서 기다리던 바이든은 트럼프 부부에 이어 JD 밴스 부통령 부부가 이석한 뒤에야 트럼프의 취임식장이자 자신의 퇴임식장을 쓸쓸히 떠났다.

트럼프는 이날 자주색 넥타이를 땀다. 공화당(빨간색)과 민주당(파란색)의 상징색이 섞인 통합을 강조하는 색

이다. 1기 취임식 때는 강렬한 빨간 넥타이 차림이었다. 트럼프는 참석자들의 환호 속에 입장해 바이든에게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고는 웃으며 그의 등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성경을 든 멜라니아 여사를 옆에 두고 취임 선서를 하면서 제47대 대통령에 올랐다. 트럼프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성경과 자신의 모친에게 받은 성경 두 권을 겹쳐 사용했다.

전통적으로 왼손을 성경에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만, 이날 트럼프의 왼손은 성경 위가 아닌 바닥으로 내려와 있었다. 연단에 선 트럼프의 표정은 바뀌

었다. 그는 “우리는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그러고는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시민의 권력과 부를 빼앗아가면서 사회의 기둥은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졌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2025년 1월 20일은 독립 기념일”이라고 했다. 바이든을 면전에 두고 그의 4년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들로 취임사는 채워졌다.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트럼프는 또 이날 취임 연설에서 “미

국은 부(富)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고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조기를 들 것”이라며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환호했다. 트럼프는 취임식 직후 백악관으로 가지 않고 인근 실내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를 찾아 연설했다.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체육관은 취임식을 생중계로 보기 위해 몰린 지지자들로 만석이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외도 뜨거웠다. 입장 표를 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외부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지켜보며 환호했다.

트럼프는 연설 직후 불법 이민 차단, 연방정부의 고용 동결, 파리 기후협약 탈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행정명령에 거리낌 없이 서명하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정명령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이었다. 서명 중인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말했고, 서명이 끝나자 서명에 쓴 펜들을 관중석으로 던졌다.

이어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는 잇따라 열린 ‘사령관 무도회’ ‘자유의 취임 무도회’ ‘스타라이트 무도회’에 참석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이승호·한지혜 기자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워싱턴대첩 구국 집회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워싱턴 동포들의 하나된 힘을 보여줍시다!

엄동설한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애국국민들에게 미국 워싱턴에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부정선거로 인해 종종매국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주권이 침탈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음을 세계적인 부정선거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불법적인 탄핵절차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 구금하려는 반국가세력인 민주당 일당 독재 세력을 규탄합니다.



● 일시 : 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

● 버스출발 시간 및 장소

VA 출발 - 구 한국일보 주차장, 1시 출발

MD 출발 - 엘리컷시티 신촌 앞, 12시 출발

*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개별 참석자는 꼭 문의해 주세요.

● 문의: VA 240-687-2457 / MD 443-622-4903

구국선포문

1.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즉각 해산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고, 29명의 대통령 각료들을 탄핵소추하며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이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을 규탄한다.
2. 더불어 민주당은 이념전쟁과 체제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사법 쿠데타 꿈수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한국내 중북 종종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서 필패할 것이니 반성하고 자숙하라.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불법선거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적극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4.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및 각료 탄핵 소추를 즉각 각하하라.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가 같은 회기 중 동일한 사안을 두번 다루면 안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측근을 탄핵 소추하였고, 자신들이 저지른 내란죄는 은폐하고 있다.
5.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전자개표기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요청한다. 국제 조사단을 파견해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한 후 위법자들을 색출, 강력 처벌하라! 반 국가 세력의 부정선거와 대북제재 위반 범죄 처리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요청한다.

참여단체

- 한미자유연맹 • 한미연합회 워싱턴도시 • 한미연합회 메릴랜드
- 원코리아재단 • 미주통일연대워싱턴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워싱턴 • 월남전참전유공자 워싱턴지회

‘핵보유국 북한’ 논란... 트럼프, 김정은과 핵군축 딜 우려

“한반도 비핵화 목표 사실상 유보”
정부 “북 비핵화 위해 미국과 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비확산 체제와 한·미의 대북 대응에서 금지시돼 온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간의 입장을 바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사실상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자신만이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북한 관련 질문을 던지자 “이제 그(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핵 보유국(Now, he is a nuclear power)”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해 10월 선거 유세에서도 “북한은 굉장히 심각한 핵 보유국(very serious nuclea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PA=연합뉴스]

power)”이라고 말했다. 한번 각인된 인상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 트럼프가 이런 인식을 거듭 표명한 건 추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향후 미국과 동등한 핵 보유국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에만 응할 테니 핵 폐기는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는 입장이다. 김정은은 지난

해 11월 전군 현장지휘관을 모아놓고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고 연설했다.

앞서 국정원은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미 간)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13일 국회 정보위원회)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핵 보유국 언급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건 곤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가 사용한 ‘nuclear power’라는 단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배타적 권한을 인정받는 핵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도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해

‘nuclear power’라는 단어를 썼다.

이는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수준을 우려하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외교에 진전을 보지 못해 이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완성하게 됐다는 취지로, 자신이려면 달랐을 것이라는 게 행간에 깔린 의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비확산 체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NPT에 가입해 원자력 기술을 습득한 뒤 이를 활용해 불법적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행태를 용인하는 건 다른 불량 국가들의 핵 개발도 용인하는 게 될 수 있어서다.

트럼프의 핵 보유국 언급에 대해 외교부는 “NPT 체제에서 북한은 절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북 핵보유국·관세폭탄... 첫날부터 ‘트럼프 스톰’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무더기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가치 동맹’을 내세웠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기조를 첫날부터 ‘미국 최우선주의’로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 2만여 명이 운집해 있는 백악관 인근 ‘캐피톨 원 아래나’에 책상을 설치해 놓고 바이든이 만든 행정명령 78건을 취소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재탈퇴를 공식화했다. 미국은 트럼프 1기 때 이들 2개의 기구에서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때 재가입했는데,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국제기구에서 재차 탈퇴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취임 첫날 진행된 트럼프의 ‘폭탄’ 행정명령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그는 취임식 일정을 마치고 무도회가 시작되기 직전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집무실로 기자들을 불렀다. 집무실 책상엔 46건의 새로운 행정명령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트럼프는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며 행정명령에 하나하나 서명하는 ‘2차 행정명령 쇼’를 이어갔다.

트럼프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핵보유국은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를 뜻하는 외교 용어다. 트럼프는 “그들(바이든 행정부)은 그(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첫날 주요 행정명령

- 파리 기후협정·WHO 재탈퇴
- 국경·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틱톡 금지 75일간 유예
-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취소
- 1·6 의회 난입 관련자 사면·감형

“김정은은 나를 좋아했고,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핵보유국이란 용어를 썼다면 향후 대북대화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이나 감축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4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

명자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수정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후 열린 군인들과의 무도회에서 경기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 미군 장병들과 공개 영상통화를 했다. 그는 “그곳 상황은 어떤가. 김정은은 잘 지내느냐”며 농담조로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관세에 대해 “2월 1일에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 시기까지 밝혔다. 다만 보편 관세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 의회 난입 사태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

다. 당시 사태로 경찰 140명 이상이 부상하고 시민 4명과 경찰 5명이 사망했지만, 트럼프는 이날도 “당시 대선은 완전히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에너지 해방’을 위해 천연자원 개발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철회 시켰다. 통상과 관련해서 기존의 자유 무역협정(FTA)에 대한 적절한 개정을 지시했고, 무역적자와 관련해서 상대국의 환율 정책에 대응까지 지시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으로서 한국이 여덟 번째 무역적자국이기도 하다.

한편 미 상원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수장 역할을 맡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99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태화 기자

‘트럼프 대관식’에 초대된 VIP 600명... 팀 쿡·베이조스·저커버그 총출동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간) 최강 북극 한파 탓에 40년 만에 실내에서 치러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초대 손님 면면에 전 세계 시선이 집중됐다. 취임식 장소인 미 의사당 중앙홀의 수용 인원은 600여 명으로 제한됐다.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 2기 취임식 때 같은

장소에 초대된 인원(96명)보다 많았지만, 애초 야외 행사로 계획해 25만여 명에게 초청장을 뿌린 것에 비하면 극소수였다.

무대 왼쪽 맨 앞에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남 트럼프 주니어, 장녀 이방카 등 가족들이 자리했다. 이들 뒤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 경영자들

이 줄지어 섰다. 트럼프 2기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마크 저커버그(메타), 스티브 워즈니악(애플), 소니 추(틱톡) 등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 총출동했다. 이들 뒤로 마코 루비오(국무)·스콧 베센트(재무)·로버트 F 케네

디 주니어(보건복지) 등 주요 장관 지명자들이 섰다.

무대 오른쪽 맨 앞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비롯해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자리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부부 동반인 것과 달리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는 불참했다. 이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모습을 드러냈다. 수지와 윌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이들 주변에 자리해 위상을 짐작하게 했다. 이들 뒤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한 정 중국 국가부주석 등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국내에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김형구 기자, 김영남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2025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One Stop Financial Services
UNI와 함께 하세요!!

최적의 메디케어 플랜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메디케어 플랜 가입 및 변경,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상담에서 신청까지 무료! 라이선스 에이전트가 도와드립니다.

페어팩스, VA
703-865-8788
 엘리콧 시티, MD
410-995-8074



문로리
 703-895-7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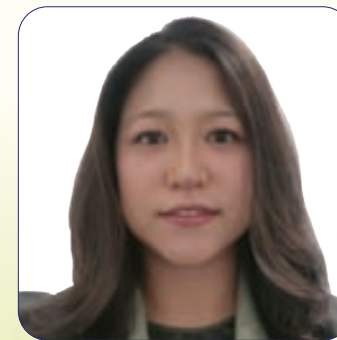


장미원
 703-486-6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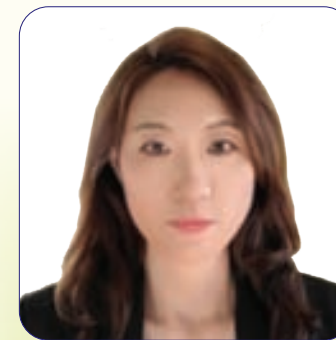


이린다
 443-515-8522

리치몬드/
 뉴포트 뉴스/
 버지니아 비치, VA
804-464-3662



안은신
 804-464-3662



이은경
 804-299-1150



최비양카
 757-869-0311

올바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올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원스탑 재정 서비스를 UNI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www.uniwfm.com

VA 페어팩스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VA 리치몬드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VA 뉴포트뉴스	700 Tech Center Pkwy. Suite 200, Newport News, VA 23606
VA 버지니아 비치	249 Central Park Ave. Suite 300, Virginia Beach, VA 23462
MD 엘리콧 시티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전기차보조금 폐지 검토... “한국, 시나리오별 협상 해야”



‘멜라니아와 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20일 저녁 취임 축하 무도회에 서 춤추고 있다.

무역 ‘트럼프 스톱’ 한국 대안은 미국 최대 20% 보편관세 일단 보류 “한국, LNG 수입확대 등 제시해야” 정부, 소통 위해 실무대표단 급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한국 배터리·전기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우선 보류됐지만,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무역협정 재검토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취임 일성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물밑협상을 준비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친환경차 세액공제,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투자세액공제 등을 지원해 왔다.

보조금 폐지는 국내 배터리·전기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전

망이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IRA 무력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그 동안 배터리 업계에서 세제 혜택이나 AMPC를 감안하고 투자가 이뤄진 만큼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배터리협회 관계자는 “행정명령만으로 IRA 자체를 폐기할 순 없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협정도 재검토할 것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는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전체 대미(對美) 흑자의 약 60%를 차지한 자동차 분야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입품에 매기는 10~20%의 보편관세에 대해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말을 아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당장은 2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물가 등 미국 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점진적인 시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관세 장벽이 세

워지기 전에 미국과 물밑협상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가 지연되고 협상 여력이 생길 경우, 미국산 LNG 수입 확대나 미 조선업 MRO의 국내 추진 등 양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와 비교해 더욱 체계적인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단 지른 다음 좌충우돌했던 1기와 비교하면 훨씬 신중한 모습이다.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했지만 물밑협상은 이뤄질 테고, 중국과도 우선 대화엔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큰 만큼 시나리오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미국의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팬에게 펜 선물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DC의 캐피털 힐 아래에서 무더기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그 펜을 지지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나상현 기자

“부담금, 부당하게 많아” WHO 탈퇴... “석유시추 허용” 파리협정서도 빠져

(기후변화)

바이든 지우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재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집권 1기에 WHO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

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각 탈퇴를 철회하거나 재가입했지만, 트럼프는 예고한 대로 집권 2기 첫날에 다시 탈퇴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날 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WHO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전

세계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부담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을 미국에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대해선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기후변화협정 갈취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석유·가스 시추 등을 허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를 내리고, 전력비축유를

채우고, 미국 에너지를 세계에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관세 인상을 피하려면 미국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박현준 기자

월가 ‘트럼프 관세’ 부과 지연 가능성에 무게... 불확실성은 여전

월가 주요 금융회사 분석가들은 취임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관련 발언이 비교적 온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월 1일 신규 관세 부과 방침을 시사해 정책 불확실성을 지속시켰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통상정책 검토 보고 시점을 오는 4월 1일로 명시한 만큼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새 관세정책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주목할 만한 경제적 영향이 올해 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인베스팅닷컴과 마켓워치 등이 21일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다만, 오는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골드만삭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의 관세정책 언급이 “예상했던 것보다 온건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

련 언급이 눈에 띄게 덜 강경했으며, 보편관세 부과 위험도 당초 예상과 비교하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확률을 55%로 평가하면서도 보편관세 부과 확률은 25%로 하향 조정했다.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확률은 20%로 낮게 평가했다.

투자정보업체 울프 리서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구체적인 관세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

신 관련 부처에 통상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한 점을 주목했다.

울프 리서치는 신규 관세 부과에 앞서 상당 수준의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관세정책 수립과 이행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를 겨냥한 관세 부과 시점을 2월 1일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각서에서 검토 결과 보고 시점을 4월 1일로 명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클레이의 마이클 맥킨 애널리스트는 4월 1일 시한이 하워드 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집권 1기 대(對)중국 고율 관세 부과 작업을 이끈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변경하기에 앞서 이들 직책이 먼저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규 정책 발표는 4월 1일 보고서 이후, 관세 발표는 그로부터 30~60일 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월 HOT 리스팅

비키리 부동산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5

\$59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2+2, 차고1

\$7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590,000

매매

센터빌 타운홈

방3, 화2, 차고2
안인마트에서 5분거리

\$625,000

임대

비엔나

켈로스 로드 콘도

방2, 화2, 차고2

\$2,550

애난데일 새 타운홈

방4, 화3.5, 차고2

\$980,000

페어팩스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825,000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2025 해외여행

항공 불포함 인솔자

1/27(월)-2/8(토)북인도 & 두바이 12박13일 마감 재키 조	
2/4(화)-2/9(일) 코스타리카 5박6일 마감 세라 정	
2/7(금)-2/20(목) 남인도 스리랑카 13박14일 마감 임박 \$5,150	조앤 한
2/12(수)-2/20(목) 스리랑카 8박9일 마감 임박 \$3,980	
2/11(화)-2/20(목) 여성 싱글 룸메이트 가능	
이집트와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마감 데이빗 한	
2/23(일)-3/3(일) 페루일주 8박9일 마감 임박 \$3,595	재키 조
3/3(월)-3/17(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리오 데 자네 마감	
3/7(금)-3/16(일)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9박10일 추천 \$3,490	조앤 한
3/19(수)-3/29(토) 튀니지와 몰타 섬 여행 10박11일 추천 \$3,790	조앤 한
3/19(수)-3/26(수) 튀니지와 사하라 사막 7박8일 \$2,890	
3/25(화)-4/6(일) 일본 12박13일 마감 재키 조	
4/9(수)-4/18(금) 남한의 동유럽 9박10일 추천 \$3,490	세라 정
4/21(월)-5/2(금)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마감 애나 김	
4/22(화)-5/2(금) 고국의 봄, 맛과 멋여행 10박11일 \$2,990	인솔자
4/29(화)-5/9(금) 서유럽3개국 10박11일 추천 \$3,590	세라 정
5/4(일)-5/16(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조앤 한
5/7(수)-5/16(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5/28(수)-6/9(일) 알프스 파노라마 마감 재키 조	
6/3(화)-6/15(일) 코카서스3국 12박13일 \$4,390	조앤 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6/10(화)-6/19(목) 알프스 하이лай트 9박10일 마감 임박 \$5,095	재키 조
7/1(화)-7/14(일) 북유럽+발틱 13박14일 \$6,595	조앤 한
7/12(토)-7/26(토) 백두산+서울시투어+일본북해도 14박15일 \$5,990	NEW
7/12(토)-7/15(화) 백두산 천지 관광 딜러스 3박4일 \$799	NEW
(연길-도문-이도백-백두산(서파, 북파),웅정) 재키 조	
7/17(목)-7/25(금) 북해도의 대자연-신록여행 8박9일 \$4,500	NEW
(북해도-삿포로, 니세코,도야, 후라노)	
7/17(목)-7/22(화) 캐나다 록키 5박6일 항공포함 \$2,190	애나 김
8/1(금)-8/15(금) 아프리카 + 블루 트레인 14박15일 \$16,400	
8/1(금)-8/13(수) 아프리카 마감 임박 12박13일 \$12,900	조앤 한
(케냐, 빅토리아폭포, 남아공)	
8/1(금)-8/8(금) 아프리카 케냐 사파리 투어 7박8일 \$5,950	
8/4(일)-8/16(토)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12,900	
8/7(화)-8/11(월) 아이슬란드 7박8일 \$6,900	재키 조
8/10(일)-8/16(토) 그린랜드 6박7일 \$5,950	
8/13(수)-8/19(화) 알래스카 6박7일 항공포함 \$3,090	세라 정
9/1(월)-9/12(금)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3,690	세라 정
9/8(일)-9/21(일) 중앙 아시아 3개국 13박14일 \$5,290	조앤 한
9/7(일)-9/17(수) 우즈베키스탄 9박10일 \$3,990	
9/14(일)-9/24(수) 서유럽3개국 10박11일 \$3,590	애나 김
9/20(토)-9/28(금)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4,795	재키 조
10/7(화)-10/16(목) 동유럽 9박10일 \$3,490	애나 김
10/9(목)-10/19(일) 포르투갈 멋여행 일주 10박11일 \$4,890	조앤 한
10/15(수)-10/25(토) 한국의 가을 10박11일 \$2,990	인솔자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6,495	재키 조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9박10일 \$2,890	조앤 한
11/7(금)-11/19(수) 일본의 알프스-알펜투어+북해도 멋여행 12박13일	재키 조
11/27(목)-11/30(일) 땡스기빙 코스타리카 3박4일	세라 정
12/6(토)-12/20(토)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14박15일 \$6,590	재키 조
12/8(일)-12/20(토) 뉴질랜드+시드니 11박12일 \$4,950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1차 4/22(화)-5/2(금)
 2차 10/15(수)-10/25(토)

모든 옵션 포함

제주포함 전국일주 10박11일 \$2,990 **항공 불포함**
 제주불포함 내륙일주 8박9일 \$2,390 **항공 불포함**

최신 28인승 VIP 리무진버스

정취있는 시골마을, 우리조상의 얼이 숨쉬는 유적지, 아름다운 제주, 한국의 숨은 명소와 고국의 맛을 찾아가는 한스의 맞춤형 딜러스 여행.
 서울-전주-여수-남해-거제-외도-부산-경주-포항-안동-속초-제주



전일정 5성급 딜러스호텔 (동대문 노보텔-소노캄 여수-소노캄거제-부산그랜드조선-라한경주-제주신라)



다채로운 지역별 특색이 담긴 전통 음식을 찾아가는 맛여행

“한국갈때 동남아 알뜰여행” 항공 불포함	베트남 하롱베이 3박 \$750	싱가폴 3박 \$850
	베트남 다낭 3박 \$450	대만 3박 \$690
	방콕 파타야 3박 \$490	홍콩 2박 \$550

한 나라 집중!

세렌디피티 스리랑카 2/12(수)-2/20(목) 8박9일 \$3,980 항공 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아프리카의 보석 튀니지 3/19(수)-3/26(수) 7박8일 \$2,890 항공 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아프리카 케냐 사파리 8/1(금)-8/8(금) 7박8일 \$5,950 항공 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	--	---

한스 추천여행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9박10일 3/7(금)-3/16(일) \$3,490 항공 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5/4(일)-5/16(금) \$3,690 항공 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아이슬란드 & 그린랜드 12박13일 8/4(월)-8/16(토) \$12,900 아이슬란드 8박9일 8/4(월)-8/11(월) \$6,900 그린랜드 5박6일 8/10(일)-8/16(토) \$5,950 인솔자:재키 조 항공 불포함
---	---	---

10박11일 미국 동부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3명이상 출발가능 루레이동굴 \$125
8명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금요일 출발가능 \$399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목요일 출발가능 2/3,2/24,3/31출발가능	
나이아가라, 뉴욕 & 브루클린 3박4일 수요일 출발가능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출발 \$1,350	

5박6일 미서부

서부4대캐년 5박6일 일요일 출발 \$990 항공 불포함
미서부 일주 8박9일 일요일 출발 \$1,540 항공 불포함
옐로스톤 3박4일 2025년 5월19일 부터 매주일,금 출발 \$990 항공 불포함
코스타리카 연합투어 5박6일 \$1,250 항공 불포함 2명이상 출발가능 월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편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치인이 과격해진 유튜브 받아들이면 민주주의의 위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 인터뷰

애국시민·반국가세력 나눈
“민주주의 죽이는 담론 완벽 사례”

트럼프 행정부, 계엄 어떻게 볼까
“한국 민주주의 망쳐도 신경 안 써”

“주류 정치인이 유튜브의 과격화(radicalization)를 수용하고 법적 절차를 거부하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국시민’ ‘반국가세력’ 명명)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담론의 완벽한 사례다.”

스티븐 레비츠키(57·정치학)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2018년 낸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때 교보문고에서 민주주의 키워드 관련 도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가 정치인의

급진적 행동을 조장한다”며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이 과격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다시 왔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사회의 시각이 달라졌다.”

“내 생각엔 트럼프 행정부는 집회에서 성조기를 들고 있던, 보수세력에 더 동정적일 거다. 미국 공화당은 과거보다 해외 민주주의에 훨씬 덜 헌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갈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죽어도 마음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50일(22일) 가까이 됐지만 좌우 충돌 등 사회 혼란이 여전하다. 한국 정치, 어떻게 평가하나.”

“나는 한국 정치 전문가가 아니지만 계엄령 선포 후 한국 사회의 초기 대응은 긍정적으로 봤다.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과 정치 엘리트가 민주적 제도를 지키려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 정치인이 상대방 접근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때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양극화다. 한국 정치는 분명 매우 양극화됐다. 극단적인 양극화는 양 진영이 규칙을 어기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정치인과 정당이 게임의 규칙을 다시 생각하고,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는 합의를 위해 마주앉아 협상할 기회였다.”

“한국의 극우 유튜브는 여당의 의사결정과 대통령 지지 집회에 상당한 역할을



◆스티븐 레비츠키 미 하버드대 교수=1968년생으로 정당과 민주주의, 권위주의 등을 연구해온 정치학자다. 2018년 하버드대 정치학과 동료인 다니얼 지블렛 교수와 함께 쓴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30개 언어로 출판됐다. 지난해엔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냈다. 미국의교회(CFR)의 민주주의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사진 레비츠키 교수 인스타그램]



한다. 소셜 미디어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 미디어를 고려할 때 정치인은 타협하지 않고, 실수를 사과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싶어 한다. 온건한 입장은 온라인에서 비판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과 타협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라이벌을 정당하게 인정하고 패배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소셜 미디어가 점점 정치인이 기본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정당이 극단주의 세력과 협력할 때 민주주의의 토대가 약화한다고 저서에서 지적했다. 한국에도 적용될까.

“주류 정치인이 극단주의적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협조를 거부하는 나, 그러지 않느냐는 큰 차이를 만든다. 주류 정치인이 유튜브 등이 과격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법적 절차를 거부하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다면 해선 안 될 일이다. 주류 보수주의자들이 반민주적 행동을 한 사람을 묵인하거나 정당화 또는 보호하는 것은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애국시민’과 ‘반국가세력’으로 나눠 부른다. 이런 네이밍(naming, 이름 짓기)을 어떻게 보나.

“민주주의를 죽이는 담론의 완벽한 사례다. 당신과 경쟁하는 정치를 하는 상대방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도 정당한 권리를 가진, 나라를 사

랑하는 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좌우 정치세력이 경쟁자를 비애국적인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라고 거부하거나 합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를 제시했다.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경쟁자 존재를 부인하는가, 폭력을 옹인하거나 조장하는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러한 특징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을 정당한 라이벌로 인정하지 않고 반애국·반대한민국·친북으로 취급하는 것은 네 가지 경고 신호 중 하나다. 계엄령을 선언한 행동도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존중하지 않은 명백한 신호다. 적어도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다. 그가 민주적 규칙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정치인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안전하다.”

“보수와 진보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 해결책은.

“양극화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인들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하고 관행을 바꾸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정치인은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 추구보다 우선할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과거가 죽기 살기로 싸워 이룩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음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번 일(계엄 사태)은 경고 신호였고, 한국 정치인들은 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을 찾을 시간이 아직 있다.”

백익현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고 있다. [뉴스1]

“2월 넘기면 물에 빠져 죽는단 심정으로 협상... 의정갈등 풀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인터뷰

“2월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이상 지나면(2월을 넘기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 시한을 2월 말로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전공의·의대생에게 사과했고, 의·정 갈등 해결의 전면에 나섰다. 18일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났다. 이 부총리는 “타결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회장과 무슨 얘기를 했다.

“제가 만나자고 청했고 1시간 정도 단 둘이 대화했다. 정부의 타결 의지, 2025년 의대생 교육 계획 등을 설명했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자고 요청했다. 분위기가 좋았다.”

“김 회장의 반응은.

“첫 만남이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신뢰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최대한 많이, 자주 만나자고 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했지만, 마이너스(2024년 정원 3058명보다 감원)가 될 수도, 제로(3058명)가 될 수도 있다. (감원도) 테이블 위에 놓겠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마이너스를 들고 와도 ‘그건 대화할 수 없다’고 막지 않을 것이다.”

“대화가 될 것 같은가.

“의사 결정 구조가 단순해졌다. 지금 대통령도, 총리도 부재한 상황이라 저와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또 합리적인 분이 의협 회장이 됐다. 3차 대화에서 타결할 수 있다고 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생각은.

“최 대행도 2월 중 타결하고 3월에는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들 의대 정원에만 집중하는데,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 중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런 것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많이 반영하고 (의대 정원) 숫자는 좀 지킬 수도 있다.”

“임상의사 면허제(2년 수련 후 개원) 도입도 재논의할 수 있다.

“(정원) 숫자가 좀 높아져야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하는 식으로 타협이 가능할 것 같다. 타결이라는 게 결

국은 주고받는 것이지 않나.”

“대통령실이 관여하나.

“그렇지 않다. 나와 조 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에 성공하려면 의사, 전공의들이 개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의사는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할 파트너다. 안 그러면 개혁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연공개혁은 하나.

“정말 미룰 수 없다. 최 대행이 ‘용광로 불을 끌 수 없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하면 존중할 것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예스터·최민지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GALAXY READY

★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1474 Hampton Hill Dr, McLean, VA	2월6일 마켓에 나올 예정. 맥클린에서 가장 인기있고, 유일하게 수영장이 있는 단지. Coming Soon 상태에서도 오퍼를 넣겠다는 사람이 있으나, 정식으로 마켓에 올릴 예정. 3년 전 약 13만불 이상 들어 집 Renovation 했음. SELL		
12495 Cliff Edge Dr, Herndon, VA	마켓에 내놓은 날 좋은 오퍼 받아 바로 계약. 오픈하우스 취소. 셀러 So Happy. SELL NEW		
Fairfax, VA	위에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소개. 4명의 경쟁을 뚫고 득템. 이기는 오퍼 자신있음. BUY		
10** Salt Meadow, McLean, VA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20일 내로 세들먼트 완료. BUY		
McLean, VA	투자용 집이 나오면 소개에 달라고 한 캘리포니아 사는 분이, 좋은 집이 나와 소개했다니 바로 구입. 바로 3년 렌트 연결. 1/3/2025 세들먼트 BUY		
McLean, VA	계약 후 10일 이내 세들먼트 완료. 현재 3년 렌트(\$4,250) 렌트하고 살 투자자. SELL		
McLean, VA	매달 25일경 기간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사업체 매매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른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 그녀의 30여개 더 있음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윤 “의원 끌어내라 한 적도, 쪽지 준 적도 없다” 공소장에 “윤이 최상목 줬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김용현)

현직 대통령 첫 탄핵심판 출석 ‘내란죄’ 뒷받침할 핵심 혐의 부인 최상목·곽종근 등 증인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적도, 국회의원들을 막으려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내란죄 핵심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피청구인 신문에서 한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두 사령관의 증언, 수사 내용, 군검찰 공소장과 엇갈리는 주장이다. 두 사람의 군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총을 쏘더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했으나 직원들이 저항하니 스

스로 나오지 않았나. 만약 막았다면 그런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지만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문 권한대행이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준 적이 있나”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이런 매도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내용을 보면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1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답변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말했고, 옆에 누군가가 저에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에도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와 관련, “(대통령 결)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쪽지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 자금을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세 가지 지시가 담겼다.

특히 국회 해산을 염두에 둔 비상입법기구는 12·3 계엄의 국회 문란 목적성을 가를 핵심 증거로 꼽힌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에게 적용되는 목적범죄다. 검찰의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쪽지 전달 경위가 그대로 기재됐다. 공소장 36쪽에 “대통령 윤석열은 3일 10시40분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줬다”며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 국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썼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던진 유일한 질문도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서 직접 부정선거 의혹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전산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란게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취지였다”며 “선거 부정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준영·김정연 기자

재판 마치려하자 윤 “잠시만요” ... “국회·언론,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 주장

(甲)

103분만에 끝난 윤 탄핵 변론 수인복 대신 양복, 붉은색 넥타이 윤, 네차레 기회 얻어 6분간 발언 국군병원 4시간 진료 뒤 구치소 복귀 공수처, 강제구인 나섰지만 또 불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린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가 경찰 버스 차벽으로 통제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58분 ‘수용번호 10번’이 달린 수인복(구치소 내 복장) 대신 감색 양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평소와 같은 2대 8 가르마를 댔다. 과거 대통령 직무 수행 당시보다 다소 체중이 준 듯했으나 표정은 밝았다. 조대현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 단과 웃으며 인사한 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은 심판정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관찰하기도 했다. 재판관들이 들어온 뒤 꾸벅 인사를 했고, 본인 확인을 할 때는 작게 대답하며 일어나서 답하려는 듯 몸을 들쭉이기도 했다.

오후 2시 시작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3시 43분 끝났다. 1시간 43분간의 변론 시간 중 윤 대통령은 총 네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6분

간 직접 발언했다. 변론이 시작된 직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하신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헌법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철들고 난 이후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고, 현재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오후 3시 40분쯤 문 권한대행이 증거 채택 관련 일정을 설명한 뒤 “이상으로...”라며 재판을 마치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잠시만요”라며 마지막 발언을 했다. 국회 측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재생했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군인들이 본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을 하나까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도 스스로 나가지 않나. 이 점을 좀...”이라며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실령 군을 투입해 방해했다더라도 그 이후 더 이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甲)’”이라며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막았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포 후 석방된 김성훈 대통령경호

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차장은 오후 1시 58분 윤 대통령이 심판정 문을 열고 입장할 때 뒤편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했고, 3시 43분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직접 심판정 안으로 들어와 의자를 앞으로 밀고 윤 대통령을 안내했다. 변론이 끝나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4시 43분 헌재를 빠져나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직행하지 않고 인근의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러 4시간 진료를 받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조유의 현직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다수 외신과 국내 언론 등 약 400명의 취재진이 몰려 평소 쓰던 브리핑룸 외에 별도의 대강당을 열었다. 안국역 사거리에도 약 25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지만, 경찰은 오전 11시 30분부터 헌재 앞 도로 전체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치고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여성 한 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경비에 투입한 경찰 기동대는 64개 부대 4000명이다.

김정연·박종서·최혜리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 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4 **A** Return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윤 병원 방문계획 몰랐던 공수처...강제구인 재시도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들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다 불발됐다.

공수처는 21일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출발했고, 오후 5시 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 42분께 헌재를 출발한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곧 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돌아온 시각은 오후 9시 9분께로 이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계획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대통

령의 이동 동선은 경호 보안 사항이어서 공수처가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사전에 소통했다면 허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려고 시도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약 6시간 만에 철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면 조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

서 불허될 수도 있는 만큼 1차 구속기간 만료보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는 대신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 두고 있다. 이날 방문 전에는 구치소에 조사실을 준비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22일 강제구인 내지 현장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윤 "선관위 문제 많아 확인한 것"...국회측 "선거부정 음모론"

현재,계엄군 CCTV 증거영상 틀어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 1호는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국익에 반하는 패악행위를 국민에게 호소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란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고,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한 것이지 기능 마비를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수행비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재 3차 변론에선 국회 측이 증거로 제출한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와 중앙선관위 건물 내·외부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재생했다. 국회의 사당 운동장에 707특임단 병력 탑승 헬기 세 대가 순차적으로 착륙하는 장면, 계엄군이 방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영상,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보좌진이 소화기를 뿌려 화면이 흐려지는 영상이 차례로 재생됐다. 과천 중

양선관위 서버실에 계엄군 3명이 들어와 20대 남성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계엄군과 대화 후 직원이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넘겨주는 모습도 나왔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에 "미리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계엄 선포 4~5분 후에 바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로 진입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수원 선거연수원 정문에 같은 날 11시36분 경찰 약 20명이 다른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모습도 재생됐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선거연수원에 진입하는 장면에서 옆에 앉은 차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2차 변론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 검증에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 대변인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PPT)으로 관인이 문개진 투표용지 사진을 보여주며 "국권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비상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대 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때 촬영된 투표지 사진을 보면 신권 다발같이 뾰뚱한 투표지 묶음이 수없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중인데 대법원을 통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사항"이라며 "선거부정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주장으로 더 이상 의혹 제기를 제한해달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를 함부로 쓰레기통에 구겨넣는 주장을 방치하면 우리 민주주의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 부정을 저지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는 선관위가 아니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행정부, 국가기관이며 이를 지휘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부정선거 음모론은 현재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서민기자

권영세, 계엄옹호 유튜버에 설 선물...커지는 '극우동행' 논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엄 옹호 등의 주장을 펴왔던 우파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정당 대표자' 명의로 보내는 설 선물 명단에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 TV' 공병호, '그라운드C'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유튜버 10인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죄 등으로 고발한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21일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회의에 참석한 권영세 원내대표(왼쪽)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연합뉴스]

했다. 명단에 오른 유튜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자극적인 영상을 잇달아 내보냈다. '신남성연대'는 8일 탄핵 반대 집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xx들, 빨리 튀어나와,

여기 있는 내 xx들 다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제도화 성공은 좌파 영구집권의 마지막 퍼즐"(19일 '공병호TV'), "난 정말 계엄에 찬성한다"(지난해 12월 13일 '그라

운드C') 등의 주장도 해왔다.

권 위원장이 이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자 당에선 "극우 유튜버에 가까운 이분들 생각과 당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오해를 받을 것"(윤희석 전 대변인), "이들과 같이 받는 선물은 고맙지도 않다"(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같은 반발이 제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 이봉규TV, 시사참고 등의 유튜버 30여 명을 초청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관저를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 "오즘 레거시 미디어는 편향돼 있다. 잘 정리된 유튜버를 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당초 계엄 사태에 사과하는 등 우파 유튜버와 거리를 두는 듯하던 당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도 묘해졌다. 유튜버들이 "권 위원장은 대체 뭘 하고 있는냐"고 비판 방송을 했고, 지도부를 향

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공격이 이어지면서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도 추운 날 집회에 나가 있는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우파 유튜버를 "대안언론"이라고 칭하며 "대안언론에 명절에 인사차 조그만 선물을 하는 거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하고 비난하려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놓고도 우파 유튜버의 주장을 차용해 "경찰이 시위대 진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0일 서면 논평에서 "경찰이 영장 발표 시점인 새벽 3시에 경비인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다고 한다"며 "후문이 뚫렸다는 이유로 정문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성지원기자

겨울 아이슬란드 오로라 사진 출사

★ 일시: 2025년 3월 20일 ~ 3월 30일 ★

20년 경력의 전문 풍경 사진작가와 함께 환상적이며 우주의 마법과도 같은 오로라와 지구이면서도 또 다른 행성인 화성에 온듯함과 불과 얼음 그리고 빙하와 바이킹의 땅인 아이슬란드 겨울의 설원, 설경의 드라마틱한 자연경관과 오로라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하세요!
사진작가와 함께 여행을 하시거자 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6명 제한 (현재 3자리 남았습니다)
풍경사진작가님 (초보, 중급, 고급) 워크샵 병행
전문 작가님과 함께 일반 관광을 생각하시는 분

문의: 703-341-7222 (메세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세지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풍경사진에 대해 배우실 분은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MOVE with 김경아 !!”

저의 전문 노하우로 집을 잘 팔고, 잘 사드리겠습니다.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우리말 바꾸기

‘소고기’ 일까 ‘쇠고기’ 일까

직장인 회식 메뉴 1위는 무엇일까?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겹살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소주와 잘 어울리는 안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고 한다.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 고기나 시켜도 된다면 아마도 삼겹살이 아니라 소갈비나 소등심 등 소고기를 시킬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 하나. 어떤 사람은 ‘소고기’라 부르고, 어떤 이는 ‘쇠고기’라 하기도 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 둘 다 맞는 말이다. 어느 것을 써도 관계가 없다. 1988년 맞춤법을 개정하면서 둘 다 표준어로 인정했다(복수표준어).

‘쇠’는 ‘소의’의 준말이고, ‘소의 고기’가 ‘쇠고기’다. 고기는 소의 부속물이므로 ‘소의 고기’라 부르던 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쇠고기’로 변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고기’라고도 많이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복수표준어로 인정했다. 그렇다고 ‘소’나 ‘쇠’를 아무 데나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의 부속물인 경우에만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선호하는 메뉴인 ‘소갈비’ ‘소등심’은 소의 부속물이므로 ‘쇠갈비’ ‘쇠등심’이라고 해도 된다. ‘소가죽·소기름·소머리·소뼈’ 등도 ‘쇠가죽·쇠기름·쇠머리·쇠뼈’ 등으로 함께 쓸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소수계 중에서도 소수의 목소리



장열
LA중앙일보
사회부 부장

도무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LA의 노숙자 문제가 그렇다.

지난해 4월이었다. LA에서 한인 노숙자가 사망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본지 기자들은 즉시 현장으로 가서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한 후배 기자가 우연히 또 다른 한인 노숙자를 마주쳤다. 그는 이강원 목사였다. 10년 전만 해도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던 그는 정작 노숙자가 되어 길거리에 살고 있었다. 노숙자를 돕던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의문이 생겼다. 그가 노숙자로 전락한 배경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조별 취재 가운데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그 이면에 보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의 일이다. 이 목사가 갑작스레 길거리에서 숨졌다. 마약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죽음이였다.

본지 취재팀은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었다. 잠시 취재 중단도 고려했지만, 다른 시각을 빌어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취재팀은 살아 있는 한인 노숙자들의 삶과 목소리를 통해 이 목사의 비극적인 죽음과 원인을 조명해보기로 했다. LA는 전국에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주류 사회 속에 한인 사회는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에 불과하다.

그러한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한인 노숙자는 더욱더 눈에 띄지 않는다. 소수계 중의 소수계인

셈이다. 일례로 취재팀은 취재 과정 중 한인 노숙자에 대한 현황이 담긴 통계 자료 등을 얻고자 했다. 문제는 정부 당국이 이러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시정부 정책의 맹점을 드러낸다. 단순히 길거리의 사람들을 노숙자라는 큰 범주 안에 집어넣고 획일적인 정책만 적용하다 보니, 소수계 중의 소수계인 한인 노숙자들의 목소리를 간과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주류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노숙자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보도해 왔지만, 실제 한인 노숙자와 같은 극소수의 미세한 목소리를 전달한 적은 없다.

한인 노숙자들은 민족적 동질감 등을 통해 한인타운 내에서 나름의 안도감을 느끼고 살아간다.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감정이 뒤섞여 더러워 한인타운에서 머물고자 하는 이유다.

본지는 한인 언론으로서 한인 노숙자들과 공유가 가능한 언어, 문화, 정서 등을 통해 주류 언론 기자들이 조명하기 어려운 틈을 취재 영역으로 삼았다. 물론 일반 한인들과 한인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단절이 존재한다. 이러한 괴리는 지난

연말 본지가 마무리한 한인 노숙자 기획 시리즈를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보도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수많은 독자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한인 노숙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현실을 기사를 통해 비로소 인식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한인들도 제대로 모르는 소수계 노숙자들의 현실을 하물며 주류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한인 노숙자 기획 기사는 단순히 소수계 노숙자에 대한 처절한 현실에 주목하자는 게 아니었다. 구성원과 구성원,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사이의 단절을 조명하고, 그 가운데 분할 수밖에 없었던 한인 노숙자들의 목소리를 꼬집어내는 게 목적이였다.

이강원 목사도 그러한 단절 속에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고, 지금도 길거리에는 여러 한인 노숙자들이 삶의 끝자락에 내몰려 있다. 본지 기자들은 수개월간 펜과 수첩을 들고 틈만 나면 길거리로 향했다. 서로 얼굴을 익혔고, 관계를 구축해 나갔다. 정신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긴 코멘트 한 줄을 받기 위해서였다.

노숙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피해와 고통도 분명 있다. 단, 이번 기사를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한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한인 사회 또 주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 자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대화가 촉발됐으면 한다. 소수 중의 소수의 목소리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목소리를 펜을 통해 증폭시켰던 이유다.

네트워크

도쿄타워와 한일 수교 60주년



김현예
도쿄 특파원

도쿄에서 한밤중 차를 타고 지나질 때마다 아, 하는 탄성을 지를 때가 있다. 주황빛으로 빛나고 있는 도쿄타워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쿄타워가 만들어진 건 1958년의 일이다. 일본에서 ‘탑 박사’로 불리는 나이트 다추(内藤多仲)가 설계했다. 철골 구조로 에펠탑보다 높게 세우면서 본래 목적인 방송 전파를 일본 전역에 송출하도록 했는데, 그가 가장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부분은 내진 설계였다. 지진과 태풍이 많은 일본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었는데, 그는 에펠탑의 설계도보다 두 배나 많은 도면을 그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쿄타워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도 쓰러지지 않고 도쿄를 지키기도 했다.

높이 333m의 도쿄타워는 543일 만에 완공됐다. 일본은 당시 철을 확보하기 어려워 한국 전쟁에서 쓰인 미군의 전차를 일본에 가져와 녹인 뒤 이 탑을 만드는 데 썼다고 한다. 지금껏 일본인들

사이에 회자되는 건 ‘죽음의 캐치볼’이라 불리는 인부들의 작업 방식이다.

철탑이다 보니 구조물 사이사이를 철핀으로 이어붙여야 했다. 인부들은 철 구조물에 올라 불을 피우고, 그 안에 철핀을 넣어 뜨겁게 만들었는데 온도가 800도에 달했다. 인부들은 이 뜨거운 철핀을 ‘캐치볼’ 하듯 최장 10~20m씩 던지고 받으며 탑을 이어붙였다. 안전장치 하나 없던 때라 목숨을 걸어야 했던 셈인데, 도쿄타워에 쓰인 철핀은 16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지금과 같이 화려한 조명이 설치된 건 1989년

1월 1일의 일이다. 봄과 가을, 겨울엔 주황으로, 여름엔 은빛으로 바뀐다. 6년 전부터는 LED 조명을 사용해 다채로운 빛을 내는데, 하루 평균 2만1000엔(약 135달러)의 전기료가 든다. 도쿄타워의 불은 매일 자정에 꺼지는데, 이 순간을 연인이 함께 보면 행복해진다든 ‘설’이 있어 커플의 성지가 되기도 했다.

서설이 길었다. 다음 달 15일이면 이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타워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불을 밝힌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회담을 기념하는 것으로 남산 서울타워와 동시 점등한다. 도쿄타워의 점등식 소식이 반가워야 하는데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우리를 절망과 탄식에 빠뜨린 계엄과 탄핵, 대통령 체포 뉴스가 쉽 없이 쏟아지는 탓이다. 우리 정부는 “정상 외교를 제외하면 외교 분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정상’ 덕에 한·일관계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갑자기 기력·기억력 뚝, 베이비부머 일흔 고비 시작됐다

662만9643명 대 662만4563명.

이달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70세 이상 인구와 30대 인구이다. '70+' 인구가 30대를 추월했다. 지난해 9월엔 60대가 40대를 추월했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만형 격인 55년생이 70대에 접어들었다. 단일 연령으로 치면 올해 70세(지난달 69세)가 40세, 41세 보다 많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2023년 8~11월, 50대 이상 8736명 조사)에 따르면 노후 시작 시기는 69세이다. 남성은 69.4세, 여성은 68.7세로 남성이 약간 늦다. 70대 응답자는 70.4세라고 답했다.

70대는 한국전쟁 전후에 태어나 한강의 기적을 일군 세대이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부모가 거의 다 사망했고, 노모만 생존한 경우가 3.5%이다. 98%는 자녀가, 27%는 손자·손녀가 있다. 이번 설날에 손자의 재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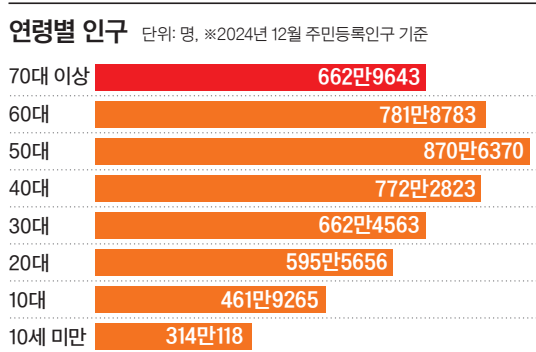
베이비부머가 70대에 진입했다. 근력·인지력 강화, 사회적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의 노인들. [뉴스1]

“체력 되면 75세에도 일한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느라 노후 준비에 소홀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모(70)씨는 중소기업에 나간다. 정씨는 “83년부터 부모님을 모셨고 모친이 2019년 돌아가셨다. 같이 살기도 하고, 따로 살 때도 있었다”며 “두 집(부모와 자녀)을 부양하다가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은퇴 후 수입이 끊겼고 조금 갖고 있는 걸 까먹으니 불안해서 일한다”고 말한다. 그는 “일을 안 하는 게 불안하다. 75세에도 체력이 따라주면 일할 생각이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70대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월 228만9000원, 60대의 절반이다. 70대의 36.1%가 일을 한다. 이들이 바라는 적정 노후 생활비(약 260만원, 부부 기준)에 못 미치지만, 최소 생활비(187만5000원) 보다 많다. 60대까지 근로소득이 가장 많지만 70대에는 국민기초연금, 복지수당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1순위로 올라선다. 70대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노후 시작의 신호는 뭘까. 기력 저하이다. 56.4%



70대의 삶

자료: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노후 인식	노후 시작 시기	70.4세	노후 시작=기력저하	56.40%	
경제력 (원)	소득	228만9000	지출	179만2000	
	순자산	3억2181만	독립적 경제력 있다	49.10%	
	적정 생활비	부부 260만 2000	지출 187만 5000		
일과 여가	취업자	36.10%	은퇴 예상	76.6세	
	은퇴 생활 만족	49%	은퇴 생활 만족	49%	
	손자녀 돌봄다	4.70%	손자녀 돌봄다	4.70%	
임금근로자	19%	상용직	70.7%	일용직	10.3%

가 그리 답했다. 정씨는 “내 나이 무렵에는 건강이 가장 큰 과제”라며 “2년 전부터 기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다”고 말한다. 1시간 넘게 걸으면 무릎에 신호가 온다. 좀 무리하면 쉬 피로하고 감기가 잦다. 가장 큰 변화는 기억력 저하다. 정씨는 “누가 힌트라도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 이름과 지명,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한다.

집콕 TV·유튜브족 인지능력 약화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60대는 의학적으로 젊은 성인과 비슷하지만 70대는 다르다. 75세에 확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를 늦추려면 70세 언저리부터 ‘3종 세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체·인지·사회화.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사람과 섞이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은퇴하면 셋을 줄이는 경향이 강한데, 그러면 안 된다. 30, 40대 못지않게 신체 기능이 좋은 수퍼에이저나 100세인을 보면 3종 세트를 열심히 한다”고 말한다. 70대는 걷기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많이 하라고 권한다. 태극권 같은 협응(신체의 신경·운동 기관, 근육이 호응하며 조화롭게 움직임) 활동이 좋다

고 한다. 정 교수는 “집에서 TV나 유튜브를 보고 밖에 안 나가면 고혈압 등의 만성병이 악화되고 인지 기능이 나빠진다”고 경고한다. 그런데 70대는 3종 세트와 거리가 멀다. 여가 활동 방법 중 TV 시청이 30%로 가장 많다. 다음이 조깅·산책·낚시 등 혼자 하는 활동(17.5%)이다.

두려운 건 치매다. 60대는 100명 중 1명꼴로 없지만 70대는 10명 중 1명, 80대는 4명 중 1명이다. 박건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는 “70대 언저리에 술·담배를 당장 끊고 허벅지·엉덩이 코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70대 중후반, 나아가 80대 치매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국·영·수에서 이제는 음·미·체(음악·미술·체육)로 옮기고, 지역사회나 친구들과 유머러스하게 섞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교수도 “공부, 글쓰기, 그림 그리기, 춤, 악기 연주 등을 하며 뇌를 자극해야 한다”고 말한다.

설에 부모 인지 테스트 금물

부산의 또 다른 정모(69·개인사업)씨는 “75세가 노인 기준 연령이어야 한다”면서도 기력 저하를 숨기지 못한다. 피로가 자주 와서 30~40분 운동하면 된다.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75세까지 일하려 한다. 부부 둘만 집에 오래 있는 게 서로 불편할 수도 있다고 여긴다. 그도 기억력 저하와 싸운다. 비법은 메모이다. 한 달에 200~300장 메모하고 두 권의 책을 읽고 글쓰기를 많이 한다.

이번 설에 자녀가 유념할 게 있다. 정희원 교수는 부모님의 체중·식욕·인지기능 변화를 체크할 것을 권한다. 체중 감소가 큰 병의 징조일 수도 있다. 단기 기억 변화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하는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않는지 등이 포인트이다. 다만 박건우 교수는 “부모님을 테스트하는 건 금물”이라고 말한다.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접 체크가 중요하다. 음식 간의 변화, 집안 정리 상태의 변화를 눈여겨본다. 박 교수는 “문제가 있다면 치매안심센터로 모시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유튜브 주화입마에 빠진 보수 정치

보수 진영이 유튜브 주화입마(走火入魔)에 빠진 걸까.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다.

시위대에 합류한 유튜브족들은 휴대전화 들고 법원 청사 내부를 헤집으며 “이제부터 전쟁” “1·19 혁명” 같은 말을 쏟아냈다. 시청자들은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 시위대 중엔 유튜브를 보다가 나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이 법원 기물을 때려 부술 때마다, 유튜브의 계좌엔 후원금이 차곡

차곡 쌓였다. 보수의 한 축은 법치(法治)인데, 법원을 습격하는 보수주의자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소요·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죄명을 떠올리기 전에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이런 ‘가짜 보수’의 범주를 진영의 문제로 넓힌 건 국민의힘 중진들이었다. 전날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시위대 17명이 체포됐다. 윤상현 의원은 법원 앞 시위대와 만나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신남성연대’ 배인규씨가 유

튜브로 생중계했다. 지난 8일 여당 지방의원들에 관저 앞으로 오라면서 “명단 하나하나 까면서 너희들 xx 거야. 이는 부닥 아닌 협박”이란 영포를 놓은 유튜브버다. 그런데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씨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해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聖戰)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이라며 시위대에 경의를 표했다. 당과 유튜브, 폭력 시위대가 뒤엉

킨 탓에 어디까지 진짜 보수고, 어디부터 참정 보수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유튜버를 정치에 활용하는 건 위험하다. 국민의 대표를 멋대로 길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이언주·안국영 후보가 김어준씨의 “차렷, 질” 구령에 맞춰 엎드린 장면이 대표적이다. 지난 14일 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 박 의원이 연단에 올라 “다치 시면 안 된다”고 호소하던 중, 누군가가

‘부정선거를 왜 모른 척하냐’고 외치자 고성어 쏟아졌다. 부정선거를 인정하라는 요구였다. 박 의원은 정중히 “사이다 발언은 저의 본분을 넘어선다”고 거절한 뒤 연단을 내려갔다. 그러자 유튜브 신해식씨가 곧장 연단에 올라 “다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국민의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이 x끼들이” “개x끼들이 나네들은 끝났어” 같은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신씨 역시 국민의힘 설 선물 명단에 오른 유튜브버다.

오현석 기자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 레드코드 치료, 사신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축안증 치료, 백엔지 치료
-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신경발달치료
-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 근육 통증치료
- 관절 / 근육이완치료
- 침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형외과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트리 지역]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스페셜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원리 기술, 원료 대량구매, 원가대신 고객에게 양보

산삼 배양근 녹용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위건강엔 마스크



medifree 코팅식이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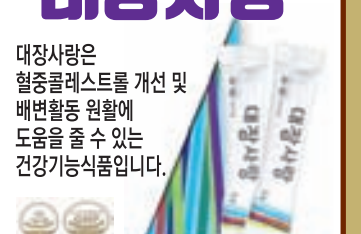
레벤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 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당케어골드

식후 당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가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가장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징크크린 정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홍삼 협심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3+1 스페셜

순도 100% 천연 황생제

그린 프로폴리스

1oz \$45
4o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지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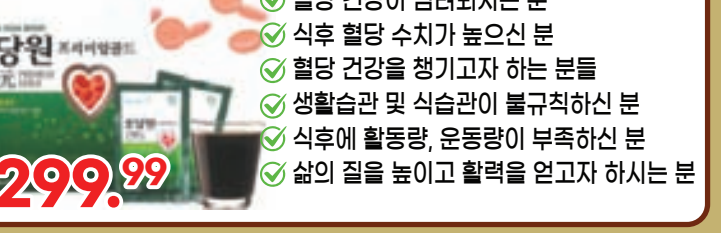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299.99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글루타치온 387mg 함유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탁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Umexen 우메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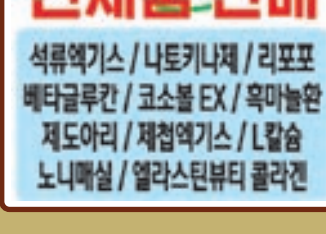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니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늘환

제도아리 / 재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입습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LA 광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January 22, 2025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덱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특하면 스트레스? 위기의 뿌리 파악이 빠른 회복 첫걸음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상황을 떠올리나. 그 전개를 예상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재빠른 환경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명확히 이해할 수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value)의 추구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위기 상황의 성격과 범위와 그 잠재적인 영향력 등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를 찾아 해낸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확인 절차 없이 자신이 듣는 정보 그대로를 믿어버리기도 한다.

약 상황 변화가 더욱 심화된다면, 자신의 일상과 지금 하는 일, 자신의 지인들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이러한 상황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이같이 예상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신속히 도출하고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날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와 대처 방안을 미리 완벽히 준비해 두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복잡한 상황변화 속에서 동시에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나친 자신감도 조심성도 경계해야

이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인도해 줄 믿음만한 나침반을 필요로 하고 찾게 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과 나의 관심·영역을 충분히 고려하는 가능한 최선의 방향으로 명확하고 용기있게 앞으로 나아가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미래가 조절 가능하고 예측 가능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한다. 과도한 자신감은 정확한 상황 관찰을 저해하고, 과도한 조심성은 두려움으로 인해 상황을 외면하게 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적시에 대처하며 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역량이 회복탄력성의 근간이란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최근의 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의 기본적 대처 방안 및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앞날에 발생할 위기 상황의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미리 예상하여 계획할 수는 없다. 준비 단계에서 마련해 둔 기본적 대처 방안과 위기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도출한 대처방안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둘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사용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팁을 제공하면 이렇다. 지금의 스트레스 상황은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4면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려면

나의 에너지를 효율적 배분·사용 위한 우선순위 검토해야

지금 스트레스가 나의 어떤 가치와 연결됐나 검토

일·직업, 친밀한 인간관계, 교육·학습 등의 개인적 성장 등

현재의 생활과 가치추구에 미치는 근본적인 중요성과 영향력의 정도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받는 일·관계·대상·집단의 유지 여부

스트레스 대처 통해 달성하려는 성취 가능한 구체적 목표 설정

① 간명하고 적절한 판단과 실제적인 이해에 기반하고 지금 상황에서 유의미

② 중요한 가치를 표상하여 동기부여 가능

③ 수긍할 수 있고 도달 가능 ④ 지금 상황과 연결

⑤ 확률이 적은 희망에 매달리지 않고, 수행에 필요한 요소·장비가 갖춰진 것

⑥ 이미 성취한 성과·결과에 기반

⑦ 적절한 시간 기한 내에 완료 가능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아침 혈압 급상승, 심뇌혈관 질환 위험 ... 24시간 혈압 변화 살펴야

겨울철 심혈관 건강 주의보 아침은 심혈관 질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는 말이 있다. 기상 후 2~3시간 동안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아침 혈압 상승(Morning Surge·모닝 서지)' 때문이다. 이는 뇌졸중·심장마비 등과 같은 심뇌혈관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겨울은 차가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해 혈압 상승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계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각한 심뇌혈관 사건을 예방하려면 시간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자신의 혈압 변화를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침 혈압 상승은 수면 중 안정적이던 혈압이 아침 기상 후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말 그대로 혈압이 갑자기 솟구친다는 얘기다. 혈압은 보통 낮 동안에 안정된 패턴을 보이다가 수면 중에 낮아지고, 아침에 기상하면서 올라간다.

아침에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는 생체 리듬의 변화다.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교감신경계 활동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상승한다. 코르티솔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호르몬으로, 스트레스 등의 자극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돕는데, 그 과정에서 혈압을 높인다.

12·2월 혈압 관련 사망 10~25% 많아 이는 건강한 사람에겐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돌연사가 아침에 잘 발생하는 것도 아침 혈압 상승과 관련이 깊다.

그 치명성은 데이터로 잘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장 질환은 전체 사망의 9.9%를 차지한다. 이는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실제로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기온이

“**혈압, 아침 기상 후 갑자기 솟구쳐 규칙적 수면 유지, 스트레스 관리 진료 후 항고혈압제 복용도 좋아**”

“낮아져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다른 달에 비해 10~25%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렇다면 이런 혈압 상승 위험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대한고혈압학회는 아침 혈압 상승이 뇌졸중·심장마비 같은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인식 아래 가정 혈압 기록과 더불어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아침 혈압 상승을 예방하려면 자신의 혈압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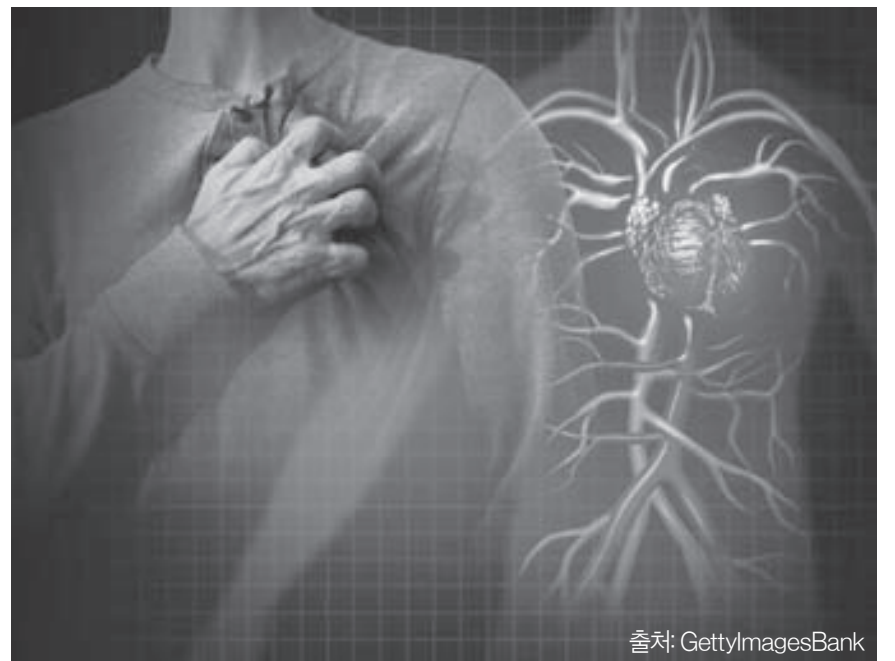
가정 혈압 일기는 아침 기상 직후와 저녁에 혈압을 측정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꾸준히 기록하면 자신의 혈압 변화 패턴을 파악하고 이상 현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혈압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측정과 기록

이 더 필요하다.

가정 혈압 일기·24시간 혈압 모니터링 도움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하루 동안의 혈압 변화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아침 혈압 상승을 포함한 혈압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엔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스마트 반지형 혈압계가 병원에서 사용되거나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기존의 24시간 활동혈압 측정 장비보다 착용이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일상생활은 물론 자가 측정이 어려운 수면 혈압까지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어 야간 고혈압 진단 및 혈압약 복용 시간 조정 등 보다 효율적인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수면 중 고혈압 노출은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지속시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수면 중 혈압 상승은 수면무호흡과 같은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뇌와 심장 손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침 혈압 상승과 더불어 수면 중 혈압 변화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침 혈압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출처: GettyImagesBank

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우선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한다. 가급적 저염 식단을 유지하되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아침 혈압 상승을 조절할 수 있는 장시간 작용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체온을 유지해 혈압이 급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노

인병내과(심장혈관센터) 김광일 교수는 “모닝 서지는 단순한 아침 혈압 상승 이상의 심각성을 지닌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압 관리를 통해 뇌졸중·뇌출혈 등 사망률이 높은 중증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의 혈압 기록과 함께 24시간 동안의 혈압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장훈 기자

병원리포트 서울아산병원 유창훈 교수팀

수술 후 재발률 높은 간외담관암, 혈액검사로 재발 가능성 예측

수술 후 재발률이 높은 간외담관암의 재발 가능성을 간단한 혈액검사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간외담관암이 재발 전에 조기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훈 교수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간외담관암 수술 및 보조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순환종양핵산(ctDNA) 분석을 위해 혈액검사를 받은 89명을 대상으로 ctDNA 검출 여부와 무질병생존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순환종양핵산이 양성인 경우 암이 재발할 위험이 4배 가량 높았다. 이번 연구 논문은 간 질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 하나인 '유럽간학회지

(Journal of Hepatology)'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팀은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 전, 보조 항암 치료 실시 12주 후, 24주 후 총 세 번 혈액검사를 했다. 순환종양핵산이 계속 양성으로 나왔거나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바뀐 환자는 47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거나 양성이었다가 음성으로 바뀐 환자는 42명이었다. 무질병생존율에 대한 순환종양핵산 양성 여부의 위험비는 3.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순환종양핵산이 검출돼 양성인 경우 간외담관암 재발률이 약 4배 높았다.

또 보조 항암 치료 중 혈액검사 결과 순환종양핵산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는 지속해서 음성이었다.

“**서울아산병원 유창훈 교수팀 분석 순환종양핵산 양성이면 4배 증가**”

환자와 생존율이 유사했다. 즉 순환종양핵산 상태 변화가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해서 순환종양핵산이 음성으로 나온 환자의 24개월 생존율은 80.4%,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된 환자는 75%였지만, 계속 양성으로 나온 환자는 50%,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환자는 45.5%였다.

보조 항암 치료 중 혈액검사 결과에서 순환종양핵산이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됐고, 실제로도 나중에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간외담관암이 재발한 11명 중 3명은 재발이 실제로 발견되기 평균 222일 전, 5명은 평균 174일 전에 혈액검사서에서 순환종양핵산이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됐다.

특히 순환종양핵산 양성 전환 당시 CA19-9, CEA와 같은 종양표지자검사는 정상으로 나타났고, 이들보다 순환종양핵산의 재발 위험 예측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종양핵산은 암세포의 찌꺼기다. 암세포는 성장하면서 주변 정상 세포를 변형시키는데 특정 형태로 변형된 유전자 조각,

즉 순환종양핵산이 혈액 속에 떠다닌다. 최근 국내외 의료계에서는 최대한 조기에 암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환종양핵산 검사에 주목하고 있다.

유창훈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간외담관암이 수술 후에도 재발률이 높다 보니 재발 위험을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에 대한 필요성이 임상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는데, CT나 MRI 검사로 암 재발을 발견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혈액검사로 순환종양핵산 검출 여부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조기부터 파악해 선제적으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선미 기자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격일 단식으로 뱃살 타파, 정기 상담으로 담배와 이별을

새해 건강관리 전략 2025년 새해다. 지난해보다 더 값진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로 다잡는 시기다. 그간 소홀했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도 많이 세울 때다. 나도 모르는 사이 부쩍 늘어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고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에 나서며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한다. 많은 이가 해마다 목표로 삼지만 그만큼 실현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실천법을 익혀 올해는 뱃살·운동 부족·담배와의 이별에 꼭 성공하자.

뱃살 감량

체중 감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뱃살이다. 외형적으로 두드러지는 부위여서 티 나게 살을 빼기가 어렵다. 대개 활동량이 부족할 때 잘 발생하며 주로 내장 지방량이 증가하면서 복부 비만으로 이어진다. 뱃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다이어트를 목표로 여러 가지를 실천하는데, 정작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몸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서영균 교수는 “뱃살을 빼고 싶어서 생활 습관 변화를 실천하고자 할 땐 체중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형태로 체성분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뱃살 감량법은 격일 단식이다. 하루는 평소처럼 먹고, 다음 날은 굶거나 점심 한 끼만 섭취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방법이다. 지속적인 칼로리 제한 식이와 비슷한 정도의 열량 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다 하루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순응도가 높은 편이다. 서 교수는 “굶거나 점심 한 끼 먹는 날 극도의 칼로리 제한이 이뤄지면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하고 지방 조직의 재분포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격일 단식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체중과 체지방량, 체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때 핵심은 근육량이다. 하루 중 단백질 섭취 비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맞춰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해야 한다. 반대로 야식·간식·폭식은 자제하고 특히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몸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잉여 탄수화물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중성지방 형태로 쌓여 질이 가장 나쁜 내장 지방형 뱃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을 태우는 데 좋다고 무작정 뛰기만 하는 것은 오산이다. 유산소 운동이 당장의 칼로리를 소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근력 운동은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는 능력치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일대일 비율로 하는 게 이상적이다. 근력 운동에 진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선 본인의 몸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서킷·타바타·인터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국 맨몸으로 짊고 굽게 하는 운동법이다. 전체 소요 시간이 짧아서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하데 반해 에너지 대사용은 높다.

운동 부족 탈피

지난해 8월 국제학술지 ‘란셋 글로벌 헬스’에 실린 논문에

“칼로리 제한, 지방세포 크기 줄이고 유산소·근력 운동 병행해 몸매 관리 금연은 약물치료·행동교정 상담을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운동 부족 인구는 2010년 26.4%에서 2022년 31.3%로 증가했다. 주당 150분의 중강도 또는 75분의 고강도 운동에 미치지 못한 경우다. 이 중 한국은 58.1%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2030년엔 69.3%가 운동 부족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의 생활화에 더해, 교통수단의 편리성 등으로 현대사회에 좌식 습관이 뿌리내리고 있어서다.

운동 부족의 악습에서 벗어나려면 일상에서 신체 활동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일부터 실천하면 좋다. 따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평소 생활에서 많이 걷고 움직이

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만큼 가치 있다. 이뎀 일상 속의 작은 변화가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게 첫걸음이다. 먼저 자신이 하루 중 얼마나 앉아서 일하거나 생활하는지 시간대별로 기록해 확인한다. 그런 다음 직업적인 이유로 앉아서 일하는 시간 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서 교수는 “예전엔 하루 30분 이상 혹은 한 번 할 때 10분 이상과 같은 신체 활동 시간을 강조했으나, 최근엔 시간이 날 때 잠깐씩 나눠서 몸을 움직이더라도 건강상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화 받을 때 앉기보다 서 있기 ▶리모컨 사용 자제하기▶점심시간에 산책하기 ▶버스·지하철 이용 시 몇 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가기 ▶주차장 입구와 먼 곳에 차 세우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오르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활동적인 여가 생활을 하거나 계절별로 취미 활동을 정하는 것도 격려할 만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꾸준히 동기를 유발하고 재미 요소를 찾음으로써 어렵게 늘린 일상생활의 활동량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성에 오랜 기간에 걸쳐 학습된 행동이 합쳐진 결과물이라 끊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요즘엔 전자담배 사용자가 늘었다. 역한 냄새가 덜하고 연기를 피우지 않아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단 생각에 금연 다짐 자체가 줄어들 분위기가. 오히려 금연하는 과정에서 전자담배의 도움을 받는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혁 교수는 “최악보다 조금 낫다는 정도지 니코틴 중독 측면에서 해로운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보다 여러 담배 제품을 동시에 쓰는 다중 사용자가 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연은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의지만으로 시작했다가 1년 후까지 금연할 확률은 8% 미만으로 낮다. 금연 보조 치료제, 행동 교정을 돕는 상담 같은 금연 파트너가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금연 성공률은 보통 약물을 처방받으면 3배, 상담받으면 1.8배 높아진다. 이 교수는 “의료진에게 금단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금연 약물을 처방받고 주기적으로 만나 행동 교정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3개월만 담배를 끊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뇌졸중·심근경색처럼 흡연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을 앓고 있다면 단번에 끊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데 흡연량이 많은 사람일 경우 한 달에 50%씩 줄이는 점진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약물은 금연을 돕는 보조 도구다. 평생 먹을 수 없으므로 결국엔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금연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금연 성공은 담배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렸다. 담배 생각이 절실해질 땐 안전부절 못하고 짜증이 나며 불안하거나 초조해지기 쉽다. 이 교수는 “이런 증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분 정도만 잘 넘기면 괜찮아진다. 이 시간 동안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 등 담배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만의 보상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연 실패 후엔 낙담하기보다 우선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하기 위해서나 가족이 걱정해서, 흡연 공간이 줄었다거나 집 안이 더러워져서와 같은 금연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이 동기부여를 하고 전문가와 실패의 원인을 찾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한 뒤 다시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김선영기자

담배 끊기
흡연은 마약 같은 강력한 중독



근력 운동



금연

2025년 건강관리 계획



다이어트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진료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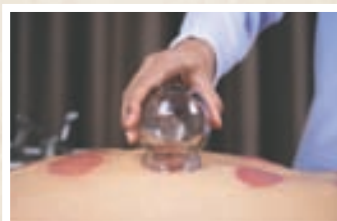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자궁내막증, 여성 누구나 생길 수 있어... 조기 진단으로 난임 위험 줄여야”

인터뷰 김성훈 대한자궁내막증학회 회장 자궁내막증은 월경(생리)을 시작한 여성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여성 질환이다. 가임기 여성의 10%가 자궁내막증이라는 보고도 있다. 자궁내막증은 월경혈이 질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난관을 통해 역류해 복강으로 들어가면서 자궁 내막 조직이 난소나 자궁인대, 방광, 장, 골반 벽 등에 붙어 증식하면서 주변 조직을 침범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월경 때 아픈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에 자궁내막증 진단이 늦어진다. 대한자궁내막증학회에서 임상적 증상 중심의 자궁내막증 조기 진단을 위해 일반인 인식 개선에 집중하는 배경이다. 대한자궁내막증학회 김성훈(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회장을 통해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내막증에 대해 알아봤다.



김성훈 회장은 “허리·골반 통증이 심하다면 자궁내막증 등 여성 질환을 의심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수정·착상 방해 난임 이어질 수도
약물치료 우선 시행해 가임력 보존
재발률 높아 지속적 치료 필요

-자궁내막증으로 의심되는 대표적 증상은 무엇인가.

“진행성 질환인 자궁내막증은 무증상부터 월경통, 성교통, 만성 골반통, 배란통 등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하다. 월경을 중심으로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 이상 징후를 자각하기 힘들다. 자궁내막증이라도 월경통이라는 생각에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평균 2.3년이 걸리고, 병의 원인을 찾아도 정확한 감별이 어려워 최종 진단까지 7~10년이 걸린다는 보고도 있다. 증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한 조기 진단·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자궁내막증은 어떻게 진단하나.

“자궁내막증 진단에 초음파·CT·MRI 등 비침습적 영상 검사가 발전하면서 임상적 증상을 중심으로 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초음파 등 영상학적 진단으로 자궁내막증이 확인된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대한자궁내막증학회에서도 자궁내막증의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와 통증 평가를 체계화한 문진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자궁내막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길 바란다.”

-청소년도 자궁내막증이 걸릴 수 있다.

“월경혈 역류로 생기는 자궁내막증

은 이론적으로 월경을 하는 모든 연령대에 생길 수 있다. 초경부터 폐경까지 가임기 여성이라면 월경통 증상에 더 주의해야 한다. 한국은 자궁내막증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걱정스럽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자궁내막증으로 진단·치료받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 숨어 있는 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궁내막증은 진단·치료가 늦어질수록 파급력이 강하다. 만성적인 허리나 골반 통증은 학업·취업·대인관계·커리어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월경기 통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궁내막증이라도 허리·골반이 좀 아픈 정도 아닌가.

“만성적 허리·골반 통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난포가 점진적으로 소실되면 가임력도 떨어진다. 난임 환자의 50% 이상은 자궁내막증이라는 보고도 있다. 자궁내막증으로 주변 장기가 유착되고 골반 내부가 해부학적으로 변형된다. 또 염증성 병변으로 정자·난자 등 생식세포의 수정과 착상을 방해해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통증은 일반적인 월경통과 양상이 다르다. 월경 시작 2일 후부터 통증 강도가 약해지는 월경통과 달리 월경 시작

직전부터 아프기 시작해 월경을 하면 덜 아프고 끝나면 다시 통증이 심해진다. 일상이 불편할 정도로 허리·골반 통증이 심하다면 자궁내막증 등 여성 질환을 의심하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궁내막증은 약물치료를 우선 권고하는데.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다. 기존에는 복강경 검사로 자궁내막증 확진 후 수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자궁내막증은 재발률이 높다. 반복해 수술을 받으면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줘 가임력이 나빠질 수 있다. 최근엔 재발률이 높은 자궁내막증의 특성을 반영해 환자 상황에 맞춘 개별화된 관리를 강조한다. 글로벌 자궁내막증 치료 표준 역시 자궁내막증 생애(Endometriosis life) 등을 고려한 장기적 약물치료다. 자궁내막 성장·증식에 관여하는 여성호르몬인 에

스트로겐의 영향을 줄이는 기전을 가진 디에노게스트 성분의 약으로 자궁내막증 진행을 억제한다. 대한자궁내막증학회에서도 진료지침을 통해 수술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제외한 약물치료를 우선 권고한다.”

-자궁내막증 치료로 가임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

“물론이다. 당장 임신 계획이 없다면 약물치료로 자궁내막증을 잘 관리하면 난포 소실 등으로 인한 가임력 저하를 막으면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 디에노게스트 성분을 중심으로 한 자궁내막증 약물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은 입증됐다. 18~45세 자궁내막증 환자 198명을 대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 척도(VAS) 변화 점수를 살펴보니 디에노게스트 치료군은 자궁내막증 병변이 사라지면서 15개월에 걸쳐 자궁내막증 관련 골반 통증이 유의미하게 줄었다. 또 복용 중단 후 배란

등 가임력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학회 차원에서 질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계획은.

“일반인 대상에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책을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정보로 더 많은 여성이 자궁내막증을 빨리 인지하고 치료를 시작하길 바란다. 또 여러 대학병원과 협력해 가임기 여성에게서 많은 자궁내막증의 기초·임상 연구도 활성화해 국제 과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궁내막증 조기 진단을 위한 생표지자 개발 등으로 신약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아시아·태평양 자궁내막증학회 사무총장 경험을 살려 세계적 규모의 국제 학회를 유치해 국내 자궁내막증 치료 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싶다.”

권선미 기자

▶ 1면 ‘스트레스’에서 이어집니다

일·직업, 친밀한 인간관계, 교육·학습 등의 개인적 성장이나 건강·신체적 자기관리, 오락·여가, 사회생활, 가족, 양성, 지역사회·환경·자연 등이 기준일 것이다. 현재의 생활과 가치 추구에 미치는 근본적인 중요성과 영향력의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 또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받는 일·관계·대상·집단의 유지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 발전시키고 싶은지 또는 대체 가능한지의 여부도 생각해보자.

셋째, 스트레스 상황 대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다. 여기서 구체적이라 함은 ‘간명하고 적절한 판단과 실제적인 이해에 기반한, 지금 상황에서 유의미한’ 걸 의미한다. 측정 가능하고(중요한 가치를 표상하여 동기부여가 가능한) 성취 가능하며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요한 건 회복

(수행할 수 있고 도달 가능한) 지금 상황에 연결되어 있고 적절한 판단에 기반하여 실제적이고 유용하며 확률이 적은 희망에 매달리지 않으며, 수행에 필요한 요소·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이미 성취한 성과·결과에 기반하며 적절한 시간 기간 내에 완료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경험 후 위기 상황이 조절 가능해지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경험을 재검토하고, 배워야 할 점을 확인한다. 비슷한 위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의 조기 대처방안을 마련한다. 스트레스는 언제든 올 수 있다. 중요한 건 회복이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김창용 발 전문병원

발이 아프시면, 이제 김창용 발 & 발목 전문의에게 맡겨 주십시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 이 발이 불편한 것을 그냥 참거나 넘기지 마세요. 발이 불편하시면 일단 거동이 어렵게 되고, 생활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이 아프거나 불편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환자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 당뇨병 발 관리
- 발 및 발목 골절
- 망치 발가락
- 당뇨 신발
- 상처 치료
- 건막류
- 기능성 발 보조기
- 족저근막염
- 사마귀 및 궤양
- 관절염

족부의학 전문의
Dr. Chang Yong Kim D.P.M.

Dr. 김창용 원장

- Kent State University, College of Podiatric Medicine
- Podiatric Surgery Residency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Wound Care Fellowship at St. John's Episcopal Hospital
-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Certified
- Hyperbaric Medicine Team Training Course Certification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Podiatric Medicine

703.394.4818

2922 Telestar Court, Falls Church, VA 22042 / 1550 Wilson Blvd, Suite 105, Arlington, VA 22209

통역 서비스 제공

www.footankledc.com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2036년 65세 이상 34% 급증, 의사 8만명 부족

건강정책 연구소 ‘커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의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급성 질환 환자의 22%는 진료를 받는 데 6일이 넘게 걸렸다. 새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데 걸리는 평균 대기 시간은 26일이었다.

뉴욕 그로스먼 의과대학의 클라렐 안투완 산부인과 교수는 “만성 질환자를 포함해 약 7000만 명의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진료까지 대기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는 정책 실패와 고령화 인구 증가도 한몫했지만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의사 부족이다.

▶의사가 부족한 이유

1980년 연방정부는 1990년까지 의사 7만 명 초과 배출을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대협회(AAMC)와 미국의학협회(AMA)는 의대생 증원을 25년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는 중대한 결함을 드러냈다. 미국 인구는 45년 전보다 1억1000만 명 증가했다. 2005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사 부족 가능성이 대두됐고 의대 증원 중단은 철회됐다.

AAMC는 2036년까지 최대 8만6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1년과 비교할 때 2036년이 되면 인구는 8.4%, 65세 이상은 34%, 75세 이상은 55%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시니어를 진료할 의사 부족이 심각할 것임을 보여준다.

▶시니어 전문의 부족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의학 전문의는 7000명이 안 된다.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에 따르면 2037년까지 노인 의학 전문의는 2000명 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스 스콧 AMA 회장은 “보험사의 사전 승인 요구 증가와 환자 상태의 복잡성 증가, 진료 보상 감소라는 삼각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신규 환자를 더 받거나 나아가 진료실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한 가지 대안은 1차 진료 의사와 전문의에게 노화에 따른 환자의 변화를 교육하는 것이다. 의대와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시니어 환자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모든 메디케어 지원 교육 과정에는 노인 환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도 제시된다.

이에 대응해 국립의학아카데미는 <시니어 환자를 돌보는 인력의 교육 강화> <새로운 진료 모델 개발> <시니어 간호 인력 증원 등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시니어 인구는 증가하는데 1차 진료 의사와 시니어 전문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니어가 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예상된다.

“ 65세 이상 급성 환자 22% 진료 받는 데 6일 의사, 1차 진료 기피... 시니어 전문의도 부족 ”

▶1차 진료 의사의 부족

의사의 수도 그렇지만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도 있다.

의사가 되려면 학비가 많이 든다. 평균적으로 의대생은 약 23만5000달러의 빚을 진다. 졸업 뒤 내과와 노인의학,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 분야에서 1차 진료 의사의 연소득은 25만~27만 5000달러다. 전문의 연소득은 이의 2배다. 1차 진료 의사보다 전문의가 되기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미국내과학회(ACP)의 아이작 오펜 회장은 “정부와 보험사들이 1차 진료 의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상 감소로 이어지고 1차 진료를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에서 1차 진료 의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건강 검진을 하고 초기 문제를 발견하고 전문 의에게 환자를 연결해 주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환자가 가장 많이 만나는 1차 진료 의사가 꼭 필요함에도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 기업 엘스비어 헬스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생과 레지던트의 절반 이상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연구나 교육 분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1명은 과도한 업무와

재정적 스트레스,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의대를 중단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2023년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의료 시스템에 높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이는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담당 의사를 신뢰했다. 환자들에게 담당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정책과 시스템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의사 부족에 대응해 빨리 담당 의사를 만나려면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간호사·스케줄 담당자와 친해진다= 병원 직원과 서로 이름을 알 정도로 친해지면 유리하다. 진료하기로 한 환자가 취소를 하거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연락받을 수 있다.

-다음 예약 미리 하기=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다음 예약 일정을 미리 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건강 관련 질문 온라인서 사전 작성= 병원에서 진료 전 사전 질문지를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기 시간은 줄이고 진료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원격 의료 옵션 문의= 진료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원격 진료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의사의 약 87%가 원격 의료를 하지만, 1년 내 이를 이용한 성인은 37%에 그쳤다.

-담당 의사에게 다른 의사 추천 받기= 담당 의사가 은퇴나 이전을 하는 경우, 그룹 내 다른 의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다. 의료 기록 공유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새 의사가 메디케어 등 현재의 보험을 받는지 확인한다.

-보험사에 의사 리스트 요청= 메디케어 수급자는 웹사이트(Medicare.gov)에서도 지역별 의사를 비교할 수 있다. 거리가 있더라도 꼭 필요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긴급 진료나 응급실 방문= 시급하게 진료가 필요할 때는 당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용 측정 기기 사용= 혈당과 혈압 측정기 등을 사용한다. 신체 변화를 알고 있으면 진료 예약을 빨리할 수도 있고 응급실에 가야 할지 결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의사 리뷰 활용= 의사를 선택할 때 온라인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 다만 의사 리뷰는 주관적이고 불만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고르려고 노력한다. 보드 인증과 전공, 보험 플랜, 병원 연계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한다.

안우희 객원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0%	53.9%	42.9%	2.3%	0.0%
매우 좋음	양호	노화 시작	주의	나쁨	매우 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찢릿찌릿, 바닥 못누움,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꼬리뼈

얼뜨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힘아쇠, 피지 않음, 힘아쇠, 피지 않음

toes cramps 발가락,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김승우 “플레이, 보이즈!”

“느닷없이 웬 리틀야구냐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입니다.”

지난달 18일, 야구계에서 뜻밖의 뉴스가 날아들었다. 배우 김승우(56)가 한국리틀야구연맹 회장 선거에서 프로선수 출신이자 경찰청 야구단 감독을 지낸 유승안 전 회장을 누르고 제7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인기 연예인이 스포츠 행정가, 그것도 한국 야구 꿈나무를 키워내는 리틀야구 수장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에 많은 이가 놀랐다.

지난 13일 취임한 김승우 신임 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갑자기 결심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야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면으로는 ‘나도 큰 틀에서 야구인’이라고 생각해왔다”며 “2012년부터 주변에서 여러 차례 (회장 도전을) 추천했고, 4년 전에도 (출마) 서류까지 다 준비했다가 고심 끝에 포기했다. 이번엔 ‘더 늦으면 진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한국리틀야구연맹 회장으로 깜짝 취임한 김승우는 취임식을 앞둔 지난 13일 본지와 만나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한국 야구의 초석을 다지는 데 꼭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화성=임현동 기자

외부인이 이미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선수 출신 후보와 경쟁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김 회장은 “야구계에선 (내) 입지가 좁으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이었다”며 “대면 선거운동은 안 된다고 해서, 연맹 대의원 160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다”고 밝혔다. 사실 처음에는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꽤 오랜 시간 남에게 부탁이나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살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대뜸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더라”라며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상대방도 처음엔 깜짝 놀라 ‘정말 김승우씨 맞아요’ 하다가 ‘목소리가 똑같네요’라며 친근해하곤 했다”고 전했다.

사실 김 회장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야구광이다. 20년 가까이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의 구단주 겸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어린 시절 야구 유니폼의 멋에 매료된 게 출발점이다. 그는 “내가 흑백 TV 세대다. 그런데 그 당시 고교야구나 실업야구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면 흑백 화면인데도 빛이 느껴질 정도로 멋져 보였다”며 “모자에 벨트까지 갖추고 운동하는 종목이 야구 말고 또 어디 있나. 정말 신사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꼭 빠졌는데, 집안 사정상 선수는 되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김 회장은 프로야구가 출범한 날까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다. 1982년 3월 27일. 그에 따르면, 그날은 전교생이 다 함께 학교 청소에 나서는 ‘환경 미화의 날’이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지”라고 묻는 담임 교사에게 “프로야구 출범일”이라고 대답했다가 혼났다. 혼나고 학교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

가 야구 중계를 봤다. 그해(원년) 우승한 OB(현 두산) 베이스 선수들의 투혼은 소년 김승우의 야구 사랑에 불을 지폈다. 그는 “어른이 되고 배우로 데뷔한 뒤에야 연예인 야구단을 통해 소원을 풀었다”며 “내가 우리 팀 3번 타자다. 다만 수비 포지션은 나이 탓에 유격수→2루수→1루수를 거쳐 지금은 지명타자로만 나간다”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일단 화제성만큼은 역대 어느 회장 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다. 당선 이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취임식이 열린 이날 화성드림파크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리틀야구 선수 학부모 반응도 폭발적이다. 리틀야구연맹 관계자는 “특히 어머니들 반응이 정말 좋다. 혹시라도 경기 때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많은 분이 기대

하고 계신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김 회장도 이런 반응과 상황을 고무적으로 여긴다. 그는 “리틀야구는 언론에 기사 한 줄 나오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사건-사고가 아닌 일로도 회장이 프라임타임 뉴스에 두 번이나 나가지 않았나”라며 “나도 놀랄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나로 인해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김 회장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면 역시 부인인 배우 김남주(54)다. 취임식 당일 행사장에 커피 트럭까지 보내 응원했다. 김 회장은 “아내는 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믿고 지지해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다만 단 하나, 날 뽑아주신 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선거 전에 했던 공약은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은 출마 전, 임기(4년) 동안 이행할 수 있는 공약만 내걸려고 고민을 거듭했다. 그렇게 해 ▶리틀야구 선수의 중학교 1학년 이중 등록 문제 해결 ▶일본-대만-미국 등과의 리틀야구 국제 교류전 활성화 ▶스폰서 유치 확대 ▶투명한 재정 운영 ▶선수 수급 개선 등을 약속했다.

연맹 회장은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명예직이다. 그래도 김 회장은 “한국 야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반드시 발로 뛰겠다”고 선언했다. 무엇보다 연맹 재원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취임식 전부터 화성특례시청을 방문해 정명근 시장을 직접 만났다. 김 회장은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리틀야구에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영은 기자

은퇴 구자철 “축구 인생 최고의 순간? 런던올림픽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의 주역 구자철(36)이 두 번째 축구 인생을 시작한다. 선수를 은퇴한 뒤 전 소속팀인 제주 SK의 유소년 어드바이저를 맡아 행정가로 새 출발 한다. 구자철은 14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열고 “축구화를 벗기로 결심한 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이

제껏 함께하며 도와주신 모든 분께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7년 K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제주 유니폼을 입은 구자철은 2010년까지 88경기에 출전해 8골·18도움을 기록했다. 2011년 볼프스부르크에 입단하며 유럽에 진출했고, 마인

츠·아우크스부르크 등을 거치며 9년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다. 이후 알가라파·알코르(이상 카타르)를 거쳐 2022년 제주에 복귀했다.

태극마크와 함께한 활약이 빛났다. 2009년 20세 이하(U-20) 대표팀 주장을 맡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행을 이끌었다. 이듬해 대

표팀에 뽑힌 그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득점왕(5골)에 올랐다. 그리고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획득에 힘을 보탤었다.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등 월드컵에도 두 차례 출전했다.



송지훈 기자

구자철이 14일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밝은 표정으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8면 '구자철' 로 이어집니다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교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교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과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영화 '미키 17'에는 주연 로버트 패틴슨(오른쪽부터)을 비롯해 외계 행성 개척단의 독재자 부부 역의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렛, '육자'에 출연한 재미교포 스티븐 연 등 할리우드 연기파 스타들이 출연했다. [사진 워너브러더스 코리아]

“발 냄새나는 인간적 SF... 불쌍한 청년의 성장 영화”

때는 2054년, 위험한 외계 행성 개척에 투입되는 익스팬더블(소모품) 청년 미키(로버트 패틴슨). 죽으면 방금 전까지 기억을 업데이트한 복제본으로 재출력되는 그의 목숨은, 화염 방사기 한 자루보다 하찮게 취급된다. 유일한 친구 티모(스티븐 연)가 17번째 미키에게 건넨 인사처럼, “미키, 잘 죽고 내일 봐!”

“소위 말하는 근미래 배경이죠. 여기 계산 여러분이 겪게 될 일이란 뜻입니다.”

봉준호(56) 감독이 미래를 무대로 또 다시 계급 문제를 꺼냈다. 내달 28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공개되는 영화 '미키 17'이다. 빈부 격차와 계급문제를 다뤄 비영어 영화 최초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 이후 그가 6년 만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신작이다.

20일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미키 17' 푸티지 상영 및 내한 간담회에 주연 배우 로버트 패틴슨(39)과 함께 참석한 봉 감독은 이 영화를 “발 냄새나는 인간적 SF, 평범하고 힘없고 불쌍한 청년의 성장 영화”라 표현했다. 불과 30년 뒤 “딱 죽기 좋은 현장에 투입돼 죽을 때마다 프린트 출력하듯 ‘출력’되는, 가슴 아픈 극한 직업에 처한 노동자가 주인공”(봉 감독)이란 점에서 이 영화로 처음 내한한 패틴슨은

“미키 17”로 6년만에 복귀한 봉준호 극한 작업하는 ‘소모품 인생’ 다뤄 기생충 이어 또 계급문제 파고들어 한국 찾은 주연 배우 로버트 패틴슨 “봉 감독 작품 출연, 주저 없이 손들어”

20일 내한 간담회에 봉준호(오른쪽) 감독과 함께 참석한 로버트 패틴슨은 “한국 영화 산업 자체가 훌륭한 것 같다. 한국 작품을 더 많이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1]

“안녕하세요” 한국말 인사를 건넨 뒤 자신의 캐릭터를 이렇게 소개했다. “17번을 죽고 나서야 삶을 다르게 살아봐야 하나, 깨닫는 인물이지요.”

패틴슨은 극중 미키 17과 더불어 출력 오류로 성격이 달라진 또 다른 분신 미키 18까지 1인 2역을 맡아 두 캐릭터의 선명한 대립을 소화해냈다. ‘더 배트맨’(2022) ‘테넷’(2020) 등 블록버스터 전작 속 청춘 스타의 모습보단 사프디 형제 감독의 ‘굿타임’(2017), 배우 윌렘 디포와 호흡 맞춘 ‘라이트하우스’(2019) 등 독립영화에서 보여준 예측불허한 연기에 가깝다.

“배우들은 한계에 도전하게 해주는



작품을 사냥하듯 찾아다닌다”고 운을 뗀 패틴슨은 “현재 전 세계에 봉 감독님 레벨의 감독은 네다섯밖에 안 된다. 모든 배우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감독”이라며 “미키 17처럼 ‘스타워즈’ 같은 규모로 SF면서 가볍고 재밌는 유머를 잃지 않는 영화는 흔치 않아, 재빨리 손들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 찍지 않고 한두 번 만에 넘어간 작품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코스모폴리스’(2012)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덕분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었어요. 배우들 사이에 ‘이 현장 최고다’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인상 깊은 봉 감독 전작으로 꼽은 영화는 ‘살인의 추억’(2003)이다. 이에 봉 감독은 “논두렁에서 형사가 경운기 타고 등장하는 영화(‘살인의 추억’)를 찍다가 이런 영화(‘미키 17’)를 찍으면 굉장히 겁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화답했다. 하나 SF가 그에게 낯선 장르는 아니다. ‘괴물’(2006) ‘설국열차’(2013) ‘육자’(2017) ‘미키 17’까지 필모그래피 8편 중 절반이 SF 장르 안에 정치적 풍자를 담았다.

“미키 17”도 원작인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시튼의 소설 『미키 7』이 있지만, 봉준호표 인장이 선명하다. 평소 정의의 투사 역을 주로 맡은 배우 마

크 러팔로가 연기한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가 한 예다. “허술하고 귀여운 면도 있지만, 위험한 귀여움이지요. 모든 독재자가 매력을 갖잖아요. 그 매력 때문에 균중을 사로잡지만, 위험함이 있죠.”(봉 감독)

‘괴물’에 이어 크리처도 등장한다. 쥐머느리를 닮은 탈복숭이 외계 생명체다. 패틴슨은 봉 감독이 직접 고안한 외계어로 이 외계 생명체와 대화하는 장면을 찍으며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나 스스로가 한심해 보여 ‘헛타’가 왔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경험이 재밌었다”고 농담 섞어 말했다.

“미키 17”은 한국에 이어 오는 3월 북미 등에서 차례로 개봉한다. 당초 지난해 개봉을 예정했다 네 차례나 시기를 변경하며 완성도 논란이 일었지만, 내달 13일 개막하는 제75회 베를린 영화제(스페셜 갈라 부문) 초청 소식이 논란을 잠재웠다. 미 현지 매체에선 “최종 편집본을 두고 봉 감독과 워너브러더스(투자·배급사)간 의견 조율이 오래 걸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봉 감독은 “애초 감독 최종 편집권으로 계약했던 작품이고 워너브러더스와의 순탄하게 이야기가 끝난 상황인데 할리우드 배우 조합 파업 등 외적 요인으로 개봉 날짜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원정기자

7면 '구자철'에서 이어집니다

구자철은 선수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런던올림픽 시상식”을 꼽았다. “단상에 올라서던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당시를 돌아킨 그는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메달을 목에 걸 때 너무나 행복했다. 한국

축구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따낸 장면을 함께한 멤버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구자철은 “(런던) 올림픽 1년 전인 2011년 8월 11일에 일본 삿포로에서 한-일전이 열렸는데, 0-3으로 졌다. 너무나 부끄러웠다”며 “참패를 계기로 ‘내가 뛰는 한-일전에서 또 지면 축

구를 그만둔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를 다졌다. 그다음 한-일전이 런던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이였다”고 당시를 복기했다.

가장 아쉬운 장면으로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을 꼽았다. 구자철은 “(한국 축구 역대) 최연소 월드컵 주장으로 대회에 나섰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어렸다”며 “국가대표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엔 그걸 느끼지 못했다. 그 경험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팬들에게는 죄송한 기억을 남겼다”고 사과했다. 2루 1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당시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구자철은 제주에서 유소년 어드바

이저로서 은퇴 후 삶을 시작한다. 그는 “내 경험을 한국 축구에 돌려주기 위한 역할을 하고 싶어 수년간 준비했다”며 “독일에서 뛴 때 유소년과 경영 분야를 많이 배웠다. 좋은 선수를 많이 발굴하고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챌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과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경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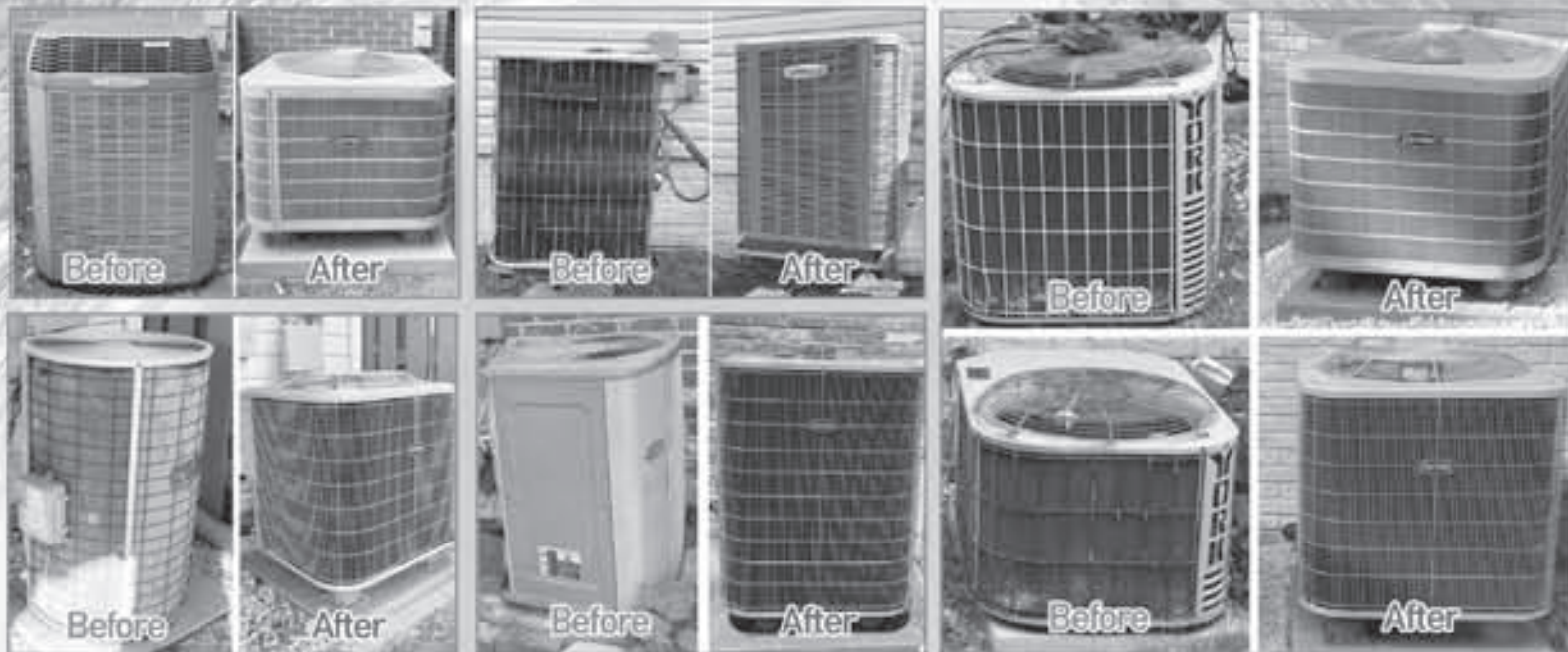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1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혜택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첸들리 VA

- ▶ 연매상 100만+25만
- ▶ 급하게 처리원함
-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즐거운 건강복지센터에서 주방장, 주방보조, RN 간호사, 리셉션니스트, 액티비티 선생님을 구합니다. 볼티모어 메릴랜드지역
410-916-6362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정육부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티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키텐트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럼비아 410-961-3012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주말 가능한분 Full/Part time, 유무경력자 443 386 0515

▶▶볼티모어 케이스톤스빌 지역 베이글샵에서 주 3-4일 7시-3시까지도와 주실분 연락주세요 443-797-3938

▶▶메릴랜드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식당 목요일과 토요일 또는 하루 일하실 서버 구합니다. 식당 Open hour 11:00 AM -8:00 PM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40-678-5395

▶▶엘리컷시티 장수 설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이미용/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뷰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서비스 할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게이더스버그 MD에서 남/여 머리하시는분 구합니다. 301-926-3638 301-538-4246(Soo)

▶▶MD 아류델밀 사평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싱글/타운 /콘도 방렌트

▶▶볼톤스빌 MD (엘리컷시티에서 18분거리) 단독주택 2층 방2/부엌/화장실 11/2/택 \$1,700 1층 방1/부엌/화장실/샤워/출입문 별도 \$700 443-983-8100

▶▶워튼 도서관 한아름 근처/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아파트식 뒷문 별도/인터넷/직장인환영 301-655-3248

지하방 렌트 워크아웃 인터넷 유료 가구일체 교통편리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우드스탁반 지하단독, 화장실, 침대, 출입문별도, 금연, MD 443 983 1880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 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군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 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 인터넷일체, 유포 \$800, 1월 입주, 직장인 남자 703-350-1986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방 2개, 화장실 1개 반, 부엌 리빙룸, 밖에 텡크 있음, 넓은 주차장, 1700불 아래층 방 하나, 부엌 화장실, 출입문 별도, 800불 버튼스빌 엘리컷시티 롯데마트에서 18분 거리 443-983-8100

사업체

메릴랜드 자이언트 옆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이발소를 \$7만5천불 판매/하노버 매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 쇼핑센터를 개조/저렴한 임대/30년 동안 같은 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맥클린 한국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간단한 영어 가능하신분 571 235 8997, 703 505 5760

Global Food에서 경력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급구 *신문광고, 자체광고, 홈페이지관리 *포토, 일러스트 필수

Woodbridge, VA 703897 6100 E-Mail: info@theglobalfood.com

내니 급구 알렉산드리아/스프링필드에서 8개월 여아 풀타임 내니 구합니다 M-F (9-5pm) 856 304 1907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모집 \$15-17/h 학생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 사무실에서 파트/풀타임 직원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스마트보험 Contracting/ Recruiting Specialist, Life&Annuity Specialist(W2) 신입/경력모집 -Life&Annuity Specialist: Life Agent 유경력자 우대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Visa 및 영주권스폰서가능 지원: smartagent@solomonus.com 703-639-0882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타우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공인 회계사무실(Annandale)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원 채용 경험자 우대. 베네핏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Email: acct2014a@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회계업무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표수집에 관심이신 분 연락 바랍니다!

우 표

우표 수집한것 팝니다 오랜동안 수집 해 온 (한국, 미국, 여러나라 우표)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이 더 좋은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R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중앙일보

홀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홀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트타임
유경력 아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당/식품

DC 백악관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 싸실분
풀타임 M-F (7am-4pm) 유경험자
703 489 5105

컨비니언 스토어 95&234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 774 7443

▶▶새로 오픈한 치킨집
주방에서 한국 음식 하실분
Warrenton, VA 경험자 우대
703-717-2341

애난데일 치맥에서

Part time Server 구합니다.
571-352-4938
Chimc.va@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서
풀타임 시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아난데일 한식당에서 경력있는 웨이트
레스 / 쿡하실분 구합니다.
301-938-4075 문자요망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크러보조구함(아전)
영주권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금,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이미용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로튼세탁소 파트/풀타임 카운터
보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3-599-5331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강동밴 냉장캠,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기타/구인/청소

▶▶가사 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잘하시는 분
맥크린(VA) 지역 가정집
주 5일 혹은 3일: 12시-19:30분
240-994-8456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일을 구합니다!
703-822-7810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반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폴/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훔알아서해주시분
703-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 픽업
풀 or 파트타임 유경험자 환영 9-6pm
410-926-3200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애난데일에 위치한 자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 아름다운 집!
.크레딧 없는 분도 가능! 월 \$7,495.
703-244-3453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킴,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lcony,
밝고 환한집. 8805.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 렌트

센터빌 롯데근처 콘도
방2, 욕실 1.5, 깨끗하고 위치 좋음
\$2200 2월부터 입주 가능
301-466-1646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콘도
방1, 욕실 1, 주차 1 남자분만
571-224-8585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렌트 방2화1
부엌화장실마루 모두 새것
\$1,950
(818)370-3477

방렌트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트 주차넉넉
703 965 234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아난데일 예촌근처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챌들리 롯데근처
싱글하우스 위층방 새놓음
남자분 환영
703 344 6273

Burke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703-678-7833

애난데일 고급 주택 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큰 방 렌트. DC 까지 7마일.
집앞에 버스 스타프 있음
703-244-3453

메릴랜드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룸 이중 욕실 딸린 큰방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방하나
주방, 욕실, 인터넷, 가구완비
301-538-1438

센터빌 유포, 세탁기, 취사가는, 아침부터 저녁 8까지 비어있음, 넓고 햇빛 잘 들고, 깨끗함.
작은방, 큰방 입주가능. 여자분만.
571-664-9905

지하방, 워크아웃, 가구일체, 인터넷완비
엘리컷 씨티, 롯데에서 10분거리
443-631-7866

아난데일 예촌근처반지하방1/ 화장/샤워/
유포, 파킹 즉시 입주가능
703-629-6275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인터넷, 가구/냉장고/욕실별도/
직장인/금연자 환영
571-230-7121
301-633-4232

▶▶지하방1/ 워아웃/샤워/
간단취사가가능/여자/커플 환영/
페어팩스 머릴필드지역
571-229-7124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뒤/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윗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
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1개 렌트
▶703-470-5238

1. 애난데일 콘도 렌트 \$1,800 방1, 화1

세탁기, 전부 리모델링, 마루,
환한 3층 1,000sqft
2.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 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3.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사무실 콘도 렌트 800 sq
571 237 3411

센터빌 던킨 뒤 오피스콘도-렌트 2층
1200sqft \$2,100, 방 1/화1/
큰 오피스 사무공간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 61 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챌들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443 631 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부동산/상업용 매매
페어팩스 싱글
\$795,000 방 4, 화 3, 전부 리모델링
마루, Twinbrook shopping
▶▶571-239-6054

▶▶앤지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
원, 카운티, DMV, 차없으신분라이드 가능
703-939-2737

▶▶수학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 중강
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
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
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귀국으로 가구 등 생활용품 일체 싸게 팔
니다.
센터빌 703-626-7370 최

한국 고전 가구 (오리자널)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 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자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 오딧세이 미니밴 2007
26만 마일 뉴타이어 상태
\$3,000
571 814 8773

▶▶우표수집한것입니다. 우표수집하
시는분 연락바랍니다. 오랜동안 여러나라의
귀하고, 소중한 우표들 새 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천정등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찬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 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을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펜
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
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론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발당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아웃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
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 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시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
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튼튼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튼튼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 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B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전화/문자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목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 플러밍/집수리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핸디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새는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씽폼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핑수리/거러교체 ◆사이드 리페어/창문 ◆데크 수리 ◆드라이얼/페인트 ◆파워워시

24 hours 7 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함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아라냉동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SK 플러밍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 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 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페어팩스에 위치한 전문 상담기관

한국어 & 영어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상담 / 심리검사 제공
Anthem, Blue Cross Blue Shield,
CareFirst 보험 In-network

Reynolds & Rubino Psychology Group, LLC

571.396.6574 전화 및 문자 가능
10301 Democracy Lane, Suite 201
Fairfax, VA 22030
rrpsychgroup.com / info@rrpsychgroup.com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for the most part: 대부분, 십중팔구는

(Katherine is talking to her friend David...)

(캐서린이 친구 데이비드와 얘기를 나누다...)

Katherine: How was Erica's party on Saturday?
캐서린: 토요일에 에리카의 파티는 어땠어?
David: It was okay.
데이비드: 무난했어.
Katherine: Just okay?
캐서린: 무난하기만 했어?
David: For the most part it was good.
데이비드: 대체로 좋았어.
Katherine: What didn't you like about it?

캐서린: 뭐가 마음에 안들었어?
David: The food left a lot to be desired.
데이비드: 음식이 좀 아쉬웠지.
Katherine: The food was bad?
캐서린: 음식이 안 좋았어?
David: Yes. And the music wasn't very good. Erica doesn't know how to throw a party.
데이비드: 응. 그리고 음악도 별로였어. 에리카는 어떻게 파티를 여는지 몰라.

Katherine: That's too bad.
캐서린: 그거 안됐네.
David: I should have brought my CDs. That would have livened things up.
데이비드: 내 CD를 갖고 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분위기가 살았을 텐데.
기억할만한 표현
▶ (something) leaves a lot to be desired: (무엇에) 아

쉬운 점이 많다.
"That movie wasn't very good. It left a lot to be desired."
(그 영화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Mary is going to throw a party for her sister. It's her birthday."
(메리가 여동생에게 파티를 열어준대요. 생일이거든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가로열쇠

(2) 남편이 아내와 함께 동행함 (4) 온 동네. ~ 소문이 자자하다 (6) 아내가 남편의 일이 잘되도록 도움 (8) 집으로 돌아감 (9) 언어, 송어 따위의 물고기가 바다로 나가 자란 후 알을 낳기 위하여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것 (11) 붉게 아주 잘 익은 감. 생각이 난다 ~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자장가 대신 젓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나훈아) (12) 길거리의 위. ~방뇨 (13) 별이가 되는 일을 하는 곳. 일터. 청년 ~는 미래를 겨냥한 시대적 변화와 산업적 변화 등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14)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 (15) 해수면으로부터 계산하여 산의 높이. ~ 1950m의 한라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둘째로 높은 산은 ~ 1915m의 지리산 천왕봉이다 (16) 칼을 떨어뜨린 뱀전애다 표시를 하였음.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20)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 그는 ~을 진담으로 알아듣는다 (21) 입 밖으로 말을 냄 (22)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나의 가르침으로 삼음 (24) 온도계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유리 대롱 부분

세로열쇠

(1) 두 줄을 맨 뒤 발판을 걸쳐 놓고 거기에 올라타고 놀조 (2)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 마을 (3)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천도교의 기본 사상 (4)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값이 같거나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더 좋은 것을 가짐 (5) 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7) 아침에 모든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 (9) 물체의 모가 진 가장자리. 책상 ~에 부딪치지 않게 조심하라 (10) 남들이 주고받는 말을 곁에서 엿들어 알게 됨 (12)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남자. 요즘에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 함부로 ~, 노처녀로 불리시는 안 될 것 같다 (13) 하나의 길고 큰 칼 (14) 그릇을 들고 다니며 짓는 농사.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밥을 빌어먹는 일. 굶어 죽지 않으려면 ~라도 지을 도리밖에 없다 (17) 낱소로 만든 밥그릇 (18) 남에게 사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들을 운수 (19) 차게 식힌 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만든 음식. 평양의 물~과 함흥의 비빔~이 유명하다 (22) 끼니때 밥에 곁들여 조금 술을 마심 (23) 교사가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에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 ~을 잡은 지 10년이 되었다

스도쿠

9	8	3		7	6	5	4	
			9		3			
2				1	8			
	3	7			2			8
6		5	7					
		9	4	5				2
8						7		3
7			8			4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9	4	6	8	2	1	7	
8	6	7	1	2	9	4	5	8
2	8	1	7	5	4	6	9	3
6	1	8	4	8	7	5	2	9
4	7	2	5	9	8	8	6	1
8	5	9	2	6	1	7	4	4
7	8	6	8	1	5	9	4	2
9	2	8	8	4	6	1	7	5
1	4	5	9	7	2	8	8	6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기타 지역

구인 구인

주방셰프 & 스시셰프 아침죽&양식죽
 풀/팟타임 달리버리겸 주방헬퍼
 경력자 우대 특별우대, 숙식제공
 *San Marcos 가족같이 오래 계실분
 *Murrieta *Menifee 알라스카 식당
 (951)225-2212 문자 (907)545-5933

이민생활의 나침반 -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K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디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 Hello Town
 구인, 자동차, 집
 관심있는 정보를 발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www.HELLOKTOWN.com
 전화문의 213.368.2525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쏙쏙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세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썩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중풍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 "이젠 웃을 수 있어요"

성민 산삼 한방 병원

'K-한약' 중풍 치료 대표 사례 "중풍은 못 고치는 불치병 아니" "중풍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허가 안 움직여 말도 못 했는데 두 달 여 치료 만에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LA 한인타운 소재 '성민 산삼 한방 병원(대표 서영수 한의학 박사)'에서 중풍 치료를 받고 있는 델휘노 고메즈 (51세)씨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한다. 델휘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잠 자려 침대 위에 앉았다가 갑자기 중풍이 왔다. 911을 불러 카이저 병원으로 이송돼 2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6개월이 지나서야 집 근처를 지팡이 없이 의지해 간신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그에게 한 한이 성민 산삼 한방 병원 명함을 건넸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델휘노 씨는 얼굴이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구안와사와 함께 손발이 오그라들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서영수 박사는 "중풍은 바람을 맞았 다는 뜻으로 태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 지고 집이 무너지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다. 중풍은 병원에서조차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침, 2침, 3침, 4 부항, 5지압, 6교정을 통해 중풍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로 델휘노 씨는 성민 산삼 한방 병원에서 약 2개월간의 치료를 통해 틀어진 몸이 반듯하게 되고, 통증이 사라졌으며, 아늘했던 발음도 또렷해졌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균형을 잡고 빠르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서 박사는 "중풍 치료를 위해서는 어깨부터 팔 손가락 다리 등 막혀있는 마 디마디를 뚫어줘야 한다. 침과 뜬을 병행해 기혈의 순환을 극대화하고 어 깨나 이상근(영양근)에서는 혈관 내 존재하는 혈전을 뽑아내야 한다. 이어 심혈관을 치료하는 금융단과 모든 위 장병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처방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풍은 뇌의 병변으로 기혈의 순환과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10여일 만에
배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속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신선농원 건대추 판매 11월 5일부터!!

좋은 건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하세요!

묵은해 대추 : NO
 찌서 말린 대추 : NO
 감미료 첨가 : NO
 화학비료 사용 : NO
 농약 사용 : NO
 중국산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70/10LBS•1BOX	\$140/10LBS•1BOX	\$100/10LBS•1BOX
\$14/lb 대추	\$11/lb 대추	\$7/lb 대추

전화주문 **714.833.4988**

* Pay by Zelle or Check (payable to Han You)
 * No credit card
 *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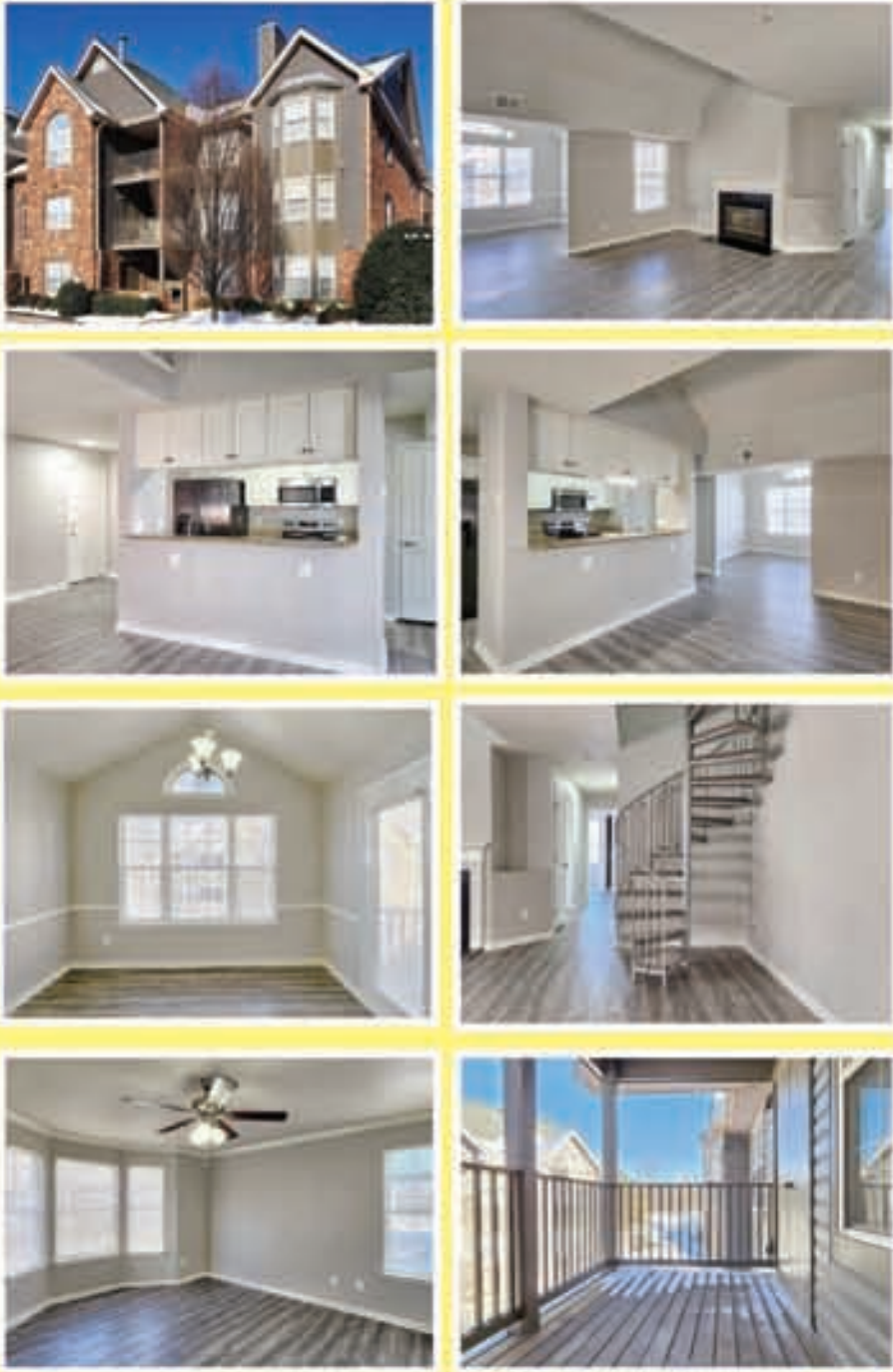
* 하와이, 알래스카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11/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특점 FAIRFAX 콘도

탑 플로어, 엔드 유닛, 큰 사이즈, Loft, 방2, 화장실2, 완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예쁜 콘도, 코스트코와 페어팩스를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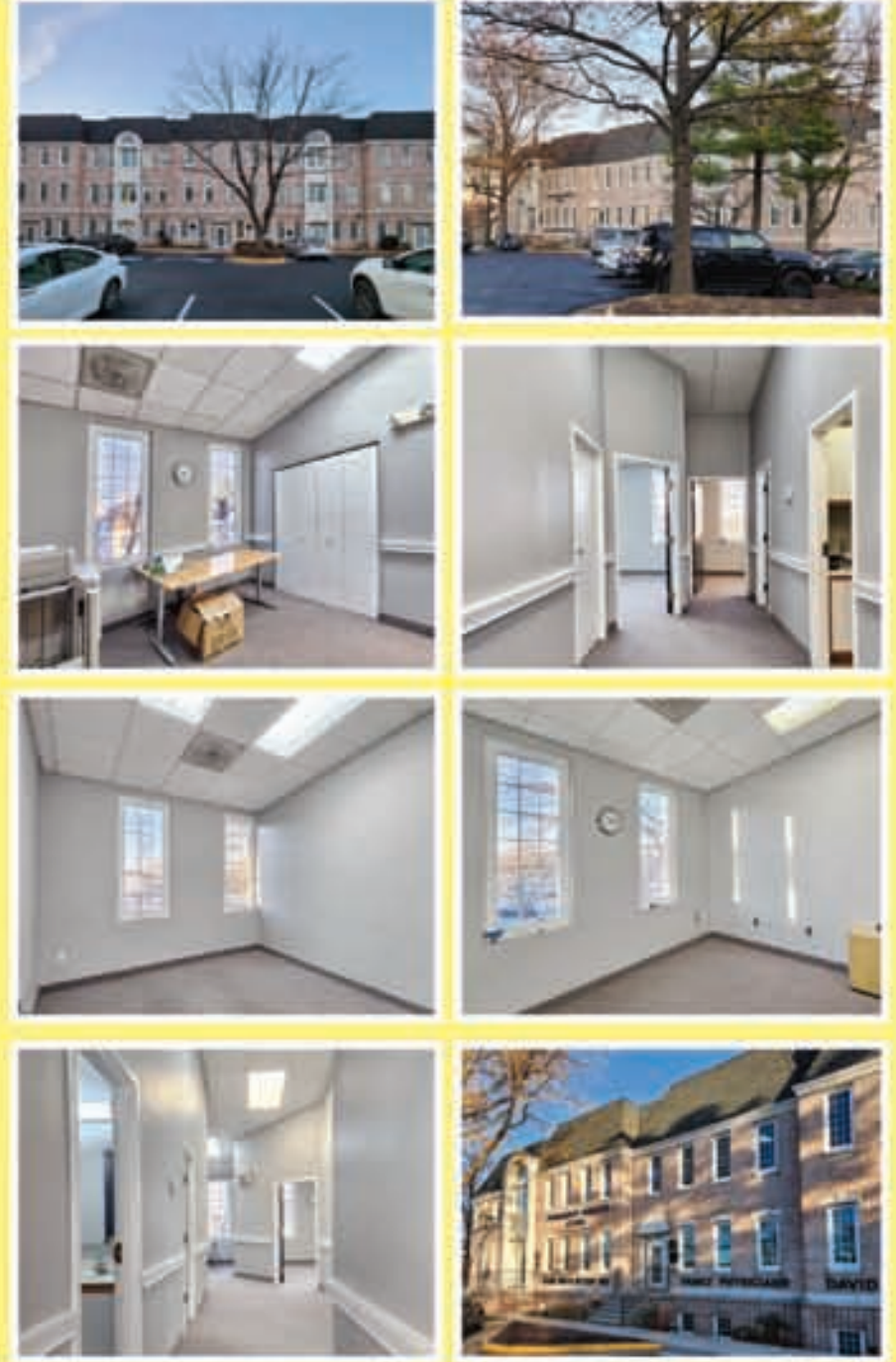
\$ 450,000



특점 FAIRFAX 오피스

새 창문, 새 페인트,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콘도, 높은 천장, 탁트인 구조, 넉넉한 주차장

\$ 265,000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방3, 화장실3,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새 마루, 새 페인트, 리모델링한 부엌, 리모델링한 화장실, 펜스있는 뒷마당, 밝고 환한 타운하우스

\$483,000



특점 Woodbridge 싱글홈

2 Car Garage, Formal Model House 방5/화3½, 탁트인 강과 숲이 보이는 경치, Walkout Basement, 첫주인이 잘 관리한 넓고 밝은 환한집

\$65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